본 학회지는 2015년 9월 1일자로 한국고령친화건강학회에서 대한고령친화산업학회로 학회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고령자 및 장애인 관련 고령친화용품, 복지, 여가, 요양, 재활, 주거환경, 식품, 미용 등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연구로 건강하고 활기찬 고령사회를 실현하여 고령자와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보다 내실 있고 수준 높은 대한고령친화산업학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 례

성별에 따른 노인의 우울 특성 연구 ................................................................. 1
김미점

작업치료(학)과 대학생들의 전공 선택 동기에 따른 전공만족도와 전공성취도에 관한 연구 ..... 9
박주형, 강신욱

원예활동프로그램이 시설지배노인의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 ........................................... 13
김한나, 박우권

뇌졸중 환자의 손재활을 위한 RAPAEL 스마트 글러브의 미치는 영향 .................................... 21
부정아, 장태용, 최현세, 양영애

경상남도의 노인인구와 노인복지여가시설의 현황 ......................................................... 29
이보민, 이두호, 염철욱, 전소현

주양육자에 따른 아동발달 수준 비교 연구: 베일리 발달검사Ⅲ ............................................. 33
이혜진, 김광재, 최주원, 임희정, 양영애

아동의 단축강각프로파일 특성 및 상관 연구 ................................................................. 41
김미경
CONTENTS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Depression of Elderly according to Gender ................................................................. 1
    Kim, Mi-Geom

A Study on the Major Satisfaction and Major Accomplishment Related on the Major Selection Motivation in Students of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 9
    Park, Ju-Hyung, Kang, Sin-Uk

The Effects of Horiticultural Activities Program on Depression of the Dementia Elderly at the Facility ........................................ 13
    Kim, Han-na, Park, Woo-kuon

A Study on Effect with RAPAEL Smart Gloves for Hand Rehabilitation of Stroke Patients .......................................................... 21
    Boo, Jung-A, Jang, Tae-Yong, Choi, Hyun-Se, Yang, Yeong-Ae

The Present Situation Analysis on Population of Elderly and Elderly Welfare Leisure Facility of Gyeongsangnamdo ................................... 29
    Lee, Bo-Min, Lee, Doo-Ho, Yeom, Choul-Wuk, Jeon, So-Hyun

Comparison of Child Development Level according to Main Fosterers: Bayley Development Test III .................................................. 33
    Lee, Hey-Jin, Kim, Gwang-Joe, Choi-Ju-Won, Lim, Hee-Jeong, Yang, Yeong-Ae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and Correlations between Short Sensory Profile of Children ................................................. 41
    Kim, Mi-Geom
성별에 따른 노인의 우울 특성 연구

김미점*

* 충남도립대학교 작업치료과

국문초록

연구목적 본 연구는 성별에 따른 노인의 우울 특성을 조사하여, 향후 진행되는 노인의 우울 특성에 따른 프로그램의 개발과 서비스 지원의 질적인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방법 성별에 따른 노인의 우울 특성을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를 빈도 및 백분율과 독립표본 t검정을 통해 나타내었다.

연구결과 성별에 따른 노인의 우울 특성의 결과로는 “요즘 들어 활동량이나 의욕이 많이 떨어지셨습니까?”와 “생活이 지루하게 느껴질때가 많습니까?” 두 영역에서 모두 남자가 평균±표준편차에서 여자보다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성별에 따른 우울 특성이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결론 성별에 따른 노인의 우울 특성의 결과로는 “요즘 들어 활동량이나 의욕이 많이 떨어지셨습니까?”와 “생활이 지루하게 느껴질때가 많습니까?” 두 영역에서 모두 남자가 여자보다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었다(p<.05).

주제어 성별, 노인, 우울, 특성

I. 서 론

최근 노인의 문제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며, 신체적 변화, 정신적인 변화 그리고 심리사회적인 변화(Song, 2001) 등으로 인해 노인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고, 이러한 노인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한다. 일반적으로 노인문제는 신체적 쇠퇴로 인한 활동성 부족, 정신기능의 약화로 인한 인지 능력 및 기억 능력 감소 그리고 심리사회적 관계 형성 저하로 인한 고립과 우울감 증가 등이 있다(Lee, & Min, 2002). 노인의 우울증상은 신경증적 증상이며, 우울증상은 심리사회적인 치료를 초기에 진행해야 심각한 사회문제로 전이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다(Lee, & Min, 2002).

노인의 우울증상을 확인하는 평가도구로는 한국판 노인 우울 척도 단축형이 보다 편리하고 시간을 단축하여 평가할 수 있는 도구이다(Gi, 1996).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노인의 우울 특성을 조사하기 위해 한국판 노인 우울 척도 단축형을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근본 연구들은 노인의 우울 특성을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나 평가도구(Kang, & Park, 2012; Gi, 1996; Shin, & Kim, 2014; Song, 2001; Lee, & Min, 2002)에 대한 연구는 많으나 성별에 따라 노인의 우울 특성을 연구한 경우는 매우 드물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노인의 우울 특성 평가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알아보고 향후 진행되는 노인의 프로그램 개발 및 서비스 사업에 대한 질적인 향상을 기하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경기, 충남 및 충북지역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 총 100명을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노인의 우울 특성을 조사하였다.

2. 연구 방법

경기, 충남 및 충북지역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 총 100명을 대상으로 2015년 9월에 성별에 따른 노인의 우울 특성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노인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및 백분율로 나타내었고, 성별에 따른 노인의 우울 특성은 독립표본 T 검정을 이용하여 통계적으로 처리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노인의 일반적 특성

노인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은 남자 50명 50.0%, 여자 50명 50.0%, 연령은 60-65세 45명 45.0%, 65-70세 24명 24.0%, 70-75세 14명 14.0%, 80-85세 7명 7.0%, 거주지역은 경기도 광주 14명 14.0%, 충남 천안 33명 33.0%, 보령 21명 21.0%, 서천 6명, 6.0%, 충북 청주 3명 3.0%, 옥천 12명 12.0%, 기타 지역 11명 11.0%로 나타났다.

노인의 일반적 특성 결과에 따르면 성별은 남녀 모 두 50명 50.0%로 같았으며, 연령은 60-65세가 45명 45.0%로 가장 많았고, 80-85세는 7명 7.0%로 가장 적었다. 거주지역은 경남 전안이 33명 33.0%로 가장 많았고, 충북 청주가 3명 3.0%로 가장 적었다.

<table>
<thead>
<tr>
<th>구분</th>
<th>N</th>
<th>%</th>
</tr>
</thead>
<tbody>
<tr>
<td>Sex</td>
<td></td>
<td></td>
</tr>
<tr>
<td>M</td>
<td>50</td>
<td>50.0</td>
</tr>
<tr>
<td>F</td>
<td>50</td>
<td>50.0</td>
</tr>
<tr>
<td>Total</td>
<td>100</td>
<td>100.0</td>
</tr>
<tr>
<td>Age</td>
<td></td>
<td></td>
</tr>
<tr>
<td>60-65</td>
<td>45</td>
<td>45.0</td>
</tr>
<tr>
<td>65-70</td>
<td>24</td>
<td>24.0</td>
</tr>
<tr>
<td>70-75</td>
<td>10</td>
<td>10.0</td>
</tr>
<tr>
<td>75-80</td>
<td>14</td>
<td>14.0</td>
</tr>
<tr>
<td>80-85</td>
<td>7</td>
<td>7.0</td>
</tr>
<tr>
<td>Total</td>
<td>100</td>
<td>100.0</td>
</tr>
</tbody>
</table>

<table>
<thead>
<tr>
<th>residen tial district</th>
<th>N</th>
<th>%</th>
</tr>
</thead>
<tbody>
<tr>
<td>Gyeonggi-do gwangju</td>
<td>14</td>
<td>14.0</td>
</tr>
<tr>
<td>chungnam cheonan</td>
<td>33</td>
<td>33.0</td>
</tr>
<tr>
<td>chungnam boryeong</td>
<td>21</td>
<td>21.0</td>
</tr>
<tr>
<td>chungnam seochon</td>
<td>6</td>
<td>6.0</td>
</tr>
<tr>
<td>chungbuk cheongju</td>
<td>3</td>
<td>3.0</td>
</tr>
<tr>
<td>chungbuk dalseon</td>
<td>12</td>
<td>12.0</td>
</tr>
<tr>
<td>etc</td>
<td>11</td>
<td>11.0</td>
</tr>
<tr>
<td>Total</td>
<td>100</td>
<td>100.0</td>
</tr>
</tbody>
</table>

2. 성별에 따른 노인의 우울 특성

성별에 따른 노인의 우울 특성(평균±표준편차)은 1) 현재의 생활에 대체적으로 만족하실니까? 는 남 1.22±0.41, 여 1.28±0.45로 여자가 높았으며, 2) 요즈음 들어 활동량이나 의욕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까? 는 남 1.70±0.46, 여 1.50±0.50로 남자가 높았으며, 3) 자신이 혼자 산다고 생각한다고 느껴십니까? 는 남 1.92±0.27, 여 1.92±0.27로 남녀 모두 같았고, 4) 생활이 지루하게 느껴지하실 때가 많습니까? 는 남 1.76±0.43, 여 1.52±0.50로 남자가 높았고, 5) 평소에 기분은 상쾌한 편이십니까? 는 남 1.38±0.49, 여 1.44±0.50로 여자가 높았다. 6) 자신에게 불편하다 생각할 일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는 남 1.86±0.35, 여 1.80±0.40로 남자가 높았고, 7) 대체로 마음이 좋지 않은 편이십니까? 는 남 1.30±0.46, 여 1.42±0.49로 여자가 높았고, 8) 절망적이라는 느낌이 자주 드실니까? 는 남 1.94±0.24, 여 1.86±0.35로 남자가 높았고, 9) 바쁜데 나가기가 싫고 집에만 있으면 안 싶습니까? 는 남 1.76±0.43, 여 1.72±0.45로 남자가 높았고, 10) 비슷한 나이의 다른 노인들보다 기억력이 더 나쁘
성별에 따른 노인의 우울 특성 연구

다음은 성별에 따른 노인의 우울 특성 연구의 결과입니다.

<table>
<thead>
<tr>
<th>Depression items</th>
<th>sex(N)</th>
<th>M±SD</th>
<th>t</th>
<th>p</th>
</tr>
</thead>
<tbody>
<tr>
<td>1) Do you generally satisfied with the current life?</td>
<td>M(50)</td>
<td>1.22±0.41</td>
<td>-0.68</td>
<td>0.49</td>
</tr>
<tr>
<td></td>
<td>F(50)</td>
<td>1.28±0.45</td>
<td>-0.68</td>
<td>0.49</td>
</tr>
<tr>
<td>2) Have you fallen off a lot of activity and motivation?</td>
<td>M(50)</td>
<td>1.70±0.46</td>
<td>2.06</td>
<td>0.04*</td>
</tr>
<tr>
<td></td>
<td>F(50)</td>
<td>1.50±0.50</td>
<td>2.06</td>
<td>0.04*</td>
</tr>
<tr>
<td>3) Do you feel that you live in vain?</td>
<td>M(50)</td>
<td>1.92±0.27</td>
<td>0.00</td>
<td>1.00</td>
</tr>
<tr>
<td></td>
<td>F(50)</td>
<td>1.92±0.27</td>
<td>0.00</td>
<td>1.00</td>
</tr>
<tr>
<td>4) How much time will you feel life is boring?</td>
<td>M(50)</td>
<td>1.76±0.43</td>
<td>2.55</td>
<td>0.01*</td>
</tr>
<tr>
<td></td>
<td>F(50)</td>
<td>1.72±0.45</td>
<td>2.55</td>
<td>0.01*</td>
</tr>
<tr>
<td>5) Do you usually feel so good?</td>
<td>M(50)</td>
<td>1.38±0.49</td>
<td>-0.60</td>
<td>0.54</td>
</tr>
<tr>
<td></td>
<td>F(50)</td>
<td>1.44±0.50</td>
<td>-0.60</td>
<td>0.54</td>
</tr>
<tr>
<td>6) Do you think that it’ll come something bad on yourself?</td>
<td>M(50)</td>
<td>1.86±0.35</td>
<td>0.79</td>
<td>0.43</td>
</tr>
<tr>
<td></td>
<td>F(50)</td>
<td>1.80±0.40</td>
<td>0.79</td>
<td>0.43</td>
</tr>
<tr>
<td>7) Are you usually a merry heart?</td>
<td>M(50)</td>
<td>1.30±0.46</td>
<td>-1.24</td>
<td>0.21</td>
</tr>
<tr>
<td></td>
<td>F(50)</td>
<td>1.42±0.49</td>
<td>-1.24</td>
<td>0.21</td>
</tr>
<tr>
<td>8) Do you often feel hopeless?</td>
<td>M(50)</td>
<td>1.94±0.24</td>
<td>0.43</td>
<td>0.43</td>
</tr>
<tr>
<td></td>
<td>F(50)</td>
<td>1.86±0.35</td>
<td>0.43</td>
<td>0.43</td>
</tr>
<tr>
<td>9) You don’t want to go outside and want to stay home?</td>
<td>M(50)</td>
<td>1.76±0.43</td>
<td>0.45</td>
<td>0.65</td>
</tr>
<tr>
<td></td>
<td>F(50)</td>
<td>1.72±0.45</td>
<td>0.45</td>
<td>0.65</td>
</tr>
<tr>
<td>10) Do you feel worse that the memory than other seniors of the same age?</td>
<td>M(50)</td>
<td>1.80±0.40</td>
<td>0.43</td>
<td>0.43</td>
</tr>
<tr>
<td></td>
<td>F(50)</td>
<td>1.78±0.41</td>
<td>0.43</td>
<td>0.43</td>
</tr>
<tr>
<td>11) Can you feel that you are to be alive as happiness?</td>
<td>M(50)</td>
<td>1.22±0.41</td>
<td>-1.54</td>
<td>0.12</td>
</tr>
<tr>
<td></td>
<td>F(50)</td>
<td>1.16±0.42</td>
<td>-1.54</td>
<td>0.12</td>
</tr>
<tr>
<td>12) Do you feel it is my own now useless person?</td>
<td>M(50)</td>
<td>1.88±0.32</td>
<td>0.00</td>
<td>1.00</td>
</tr>
<tr>
<td></td>
<td>F(50)</td>
<td>1.88±0.32</td>
<td>0.00</td>
<td>1.00</td>
</tr>
<tr>
<td>13) Are you good energy?</td>
<td>M(50)</td>
<td>1.45±0.50</td>
<td>-0.79</td>
<td>0.42</td>
</tr>
<tr>
<td></td>
<td>F(50)</td>
<td>1.54±0.50</td>
<td>-0.79</td>
<td>0.42</td>
</tr>
<tr>
<td>14) Do you feel now that there is no hope?</td>
<td>M(50)</td>
<td>1.92±0.27</td>
<td>0.38</td>
<td>0.69</td>
</tr>
<tr>
<td></td>
<td>F(50)</td>
<td>1.90±0.30</td>
<td>0.38</td>
<td>0.69</td>
</tr>
<tr>
<td>15) Do you feel worse than other people’s situation yourself?</td>
<td>M(50)</td>
<td>1.88±0.32</td>
<td>0.31</td>
<td>0.75</td>
</tr>
</tbody>
</table>

*p<.05

Table 2. Elderly Depression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gender groups
Ⅳ. 고 찰

본 연구는 성별에 따른 노인의 우울특성을 조사하여 향후 진행되는 노인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서비스 지원을 증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향후 진행되는 성별에 따른 노인의 우울 특성을 분석하여 노인 사업의 질을 향상하고자 실시하였으며,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고찰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이 경기, 충남 및 충북 지역으로 조사에 참여한 100명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지역적 한계가 있다.

둘째, 성별에 따른 노인의 우울 특성 연구를 조사한 결과 “요즈음 들어 활동량이나 의욕이 많이 떨어지셨습니까?”와 “생활이 지루하게 느껴질때가 많습니까?”에서 두 영역 모두 남자가 평균±표준편차에서 여자보다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성별에 따른 우울 특성이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본 연구를 통해 60세 이상의 남자는 여자보다 외부 활동에 대한 의욕하락과 일상생활에서 지루함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Jeong, S. M. (2013). (The)predictive effect of melancholy disposition and the level of facility service satisfaction on subjective well-being of senior citi.

V. 결 론

성별에 따른 노인의 우울 특성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는 향후 노인의 성별에 따라 우울 특성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서비스의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통해 성별에 따른 노인의 우울 특성 개선을 위한 서비스 지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으며, 성별은 노인의 우울 특성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시사함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Abstract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Depression of Elderly according to Gender

Kim, Mi-Geom*, Ph.D.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Chungnam State University

Objective: This study investigate on the Characteristics of Depression of Elderly according to gender, intended to serve as a basis for improving of program development and the quality of services support in future progress of Characteristics of Depression of elderly.

Methods: The way of this study was analysis the investigation result of the characteristics of depression of elderly according to gender, the result analysis represented by frequency and percentage and independent sample T-test.

Results: As a result of characteristics of depression of elderly according to gender "Just lately, Did you fall off a lot of activity or motivated?" and "How many times when you feel life is boring?" in both areas men appear higher than women in mean ± standard deviation, and it got statistically showed significantly difference that characteristics of depression of elderly according to gender(p <.05).

Conclusion: As a result of characteristics of depression of elderly according to gender "Just lately, Did you fall off a lot of activity or motivated?" and "How many times when you feel life is boring?" in both areas men appear higher than women, and it got statistically showed significantly difference(p <.05).

Key Words: Gender, Elderly, Depression, Characteristics
작업치료(학)과 대학생들의 전공 선택 동기에 따른 전공만족도와 전공성취도에 관한 연구

박주형*, 강신욱*

*경북전문대학교 작업치료과

국문초록

서론 본 연구는 현재 대학에 재학중인 작업치료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전공 선택 동기에 따른 전공 만족도 및 전공 성취도를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방법 작업치료과가 개설되어 있는 경북 도내에 소재해 있는 대학의 작업치료과 재학생들 7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전공 선택 동기에 따른 전공 만족도 및 전공 성취도의 관계를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총 배부된 75부 중 정확히 기입된 66부를 가지고 비교 분석하였으며, 전공 선택 동기인 적성 및 흥미에 의해서 일 경우 전공 만족도 및 전공 성취도는 높은 경향이 나타났으며, 취업 전망, 점수에 맞추어서, 타인의 추천 등으로 인했을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전공 만족도 및 전공 성취도가 나타났다.

결론 전공 선택시 자신의 의한 능동적 선택시 보다 긍정적인 전공 만족도 및 전공 성취도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적은 대상군으로 인해 추후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

주제어 전공 선택 동기, 전공 만족도, 전공 성취도

I. 서 론

작업치료사라는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발달과정에서 어떠한 이유로 기능이 저하된 사람에게 의미 있는 치료적 활동(작업)을 통해 최대한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고 능동적으로 사회생활에 참여함으로써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치료, 교육하는 보건의료 전문가이다(Korean Association of Occupational Therapists, 2009). 국내 작업치료사는 급속한 증가 추세에 있으 며, 작업치료 관련법의 개정으로 보조공학, 장기요양 보험제도, 지역사회재활, 인지재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작업치료사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Jung, & Cha, 2009).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부합하여, 최근 작업치료(학)과 또한 매우 급속한 양적 폭창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해 작업치료사 멘 히의 취득과 국민의 보건과 건강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효율적인 교육방안의 모색이 중요해지고 있다.

하지만 근래 국내에서의 지속적인 경기하락으로 인 한 일자리 감소, 인력수급의 불균형 등 취업난과 구조조정 등으로 고용 불안정성이 높아져 취업경쟁이 매 우 증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학 진학을 앞둔 고등학교 수험생들의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자신 의 능력이나 소질, 또는 흥미를 고려하는 것보다 합격
위주의 전학결정을 함으로서 상당수의 학생들에게서 학과 부적응 및 중도이탈 등의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한다. 대학생들의 전공 선택 동기는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부모, 선생님, 친구 등의 의견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자신의 적성이나 흥미 등의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Song, 2014). 또한, 이러한 전공 선택 동기는 전공 만족도 및 전공 성취도와 연결되기도 한다. 따라서, 작업치료과 재학생들의 전공 선택 동기에 따른 전공 만족도와 전공 성취도에 대해 연구하는 것은 작업치료과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과정이며, 나아가 우수한 작업치료사를 배출하는데 있어 중요한 과제라고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대학에 재학중인 작업치료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전공 선택 동기에 따른 전공 만족도 및 전공 성취도를 알아보고자 한다.

Ⅰ.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작업치료과가 개설되어 있는 경북도내 소재 대학의 작업치료과 재학생들 7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 연구 도구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되어진 설문지는 Kim(2011)의 연구에서 사용되어진 설문지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는데, 학생들의 전공 선택 동기, 전공 만족도 및 전공 성취도 등을 알아보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자료의 수집은 경북도내 재학생들에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자기기입식 방법으로 작성되어 졸업과의 전공 선택 동기 및 전공 만족도와 전공 성취도를 알아보고자 한다. 설문지는 총 75부를 배포하여 72부를 회수하였으며, 이중 설문응답이 미흡한 6부를 제외한 총 66부(88%)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3.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7.0을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전공 선택 동기에 따른 전공 만족도와 전공 성취도 등은 비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Ⅱ. 연구 결과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table>
<thead>
<tr>
<th>Age</th>
<th>M</th>
<th>SD</th>
<th>M</th>
<th>SD</th>
<th>M</th>
<th>SD</th>
</tr>
</thead>
<tbody>
<tr>
<td>20~22</td>
<td>10.0</td>
<td>15.2</td>
<td>27.0</td>
<td>40.9</td>
<td>37.0</td>
<td>56.1</td>
</tr>
<tr>
<td>23~25</td>
<td>17.0</td>
<td>25.8</td>
<td>10.0</td>
<td>15.2</td>
<td>27.0</td>
<td>40.9</td>
</tr>
<tr>
<td>26~</td>
<td>1.0</td>
<td>1.5</td>
<td>10.0</td>
<td>1.5</td>
<td>2.0</td>
<td>3.0</td>
</tr>
<tr>
<td>School</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College</td>
<td>28.0</td>
<td>42.4</td>
<td>38.0</td>
<td>57.6</td>
<td>66.0</td>
<td>100.0</td>
</tr>
<tr>
<td>University</td>
<td>0.0</td>
<td>0.0</td>
<td>0.0</td>
<td>0.0</td>
<td>0.0</td>
<td>0.0</td>
</tr>
<tr>
<td>Selective motives for specialization</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Aptitude interest</td>
<td>7.0</td>
<td>10.6</td>
<td>8.0</td>
<td>12.1</td>
<td>15.0</td>
<td>22.7</td>
</tr>
<tr>
<td>A prospect to working</td>
<td>9.0</td>
<td>13.6</td>
<td>13.0</td>
<td>19.7</td>
<td>22.0</td>
<td>33.3</td>
</tr>
<tr>
<td>Entrance examination scores</td>
<td>7.0</td>
<td>10.6</td>
<td>2.0</td>
<td>3.0</td>
<td>8.0</td>
<td>12.1</td>
</tr>
<tr>
<td>The advice of others</td>
<td>2.0</td>
<td>3.0</td>
<td>8.0</td>
<td>12.1</td>
<td>11.0</td>
<td>16.7</td>
</tr>
</tbody>
</table>

Table 1. The personal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구 대상 66명 중 남자는 28명(42.4%)이었고, 여자는 38명(57.5%)이었다. 연구대상자들의 평균 연령은 21.9세였으며, 전체 대상자 모두 3년제 작업치료과 소속이었다. 전공 선택 동기에서는 취업전망이 좋을 것 같아서 따로 답한 학생이 22명(33.3%)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적성에 맞을 거 갈아서 15명(22.7%), 부모님 또는 주변 사람들의 권유(17.2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2. 전공 선택 동기에 따른 전공 만족도 차이

연구대상자들의 전공 선택 동기에 따른 전공 만족도는 Table 2와 같다. 적성이 맞을 거 갈아서를 선택한 학생들(19.8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흥미에 맞을 거 갈아서(19.1점), 취업전망이 좋을 거 갈아서(17.9점), 부모님 또는 주변사람들의 권유(17.4점), 점수에 맞춰서(16.9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학생들의 경우에도 전공 선택 동기는 적성이 맞을 거 갈아서(19.8점)를 선택한 학생들의 전공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취업전망이 좋을 거 갈아서(19.0점), 부모님 또는 주변사람들의 경력(18.2점), 취업 전망이 좋을 거 갈아서(17.2점), 점수에 맞춰서(16.8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학생들의 경우도 적성에 맞을 거 갈아서(20.2점)를 선택한 학생들의 전공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취업 전망이 좋을 거 갈아서(18.1점), 점수에 맞춰서(17.8점), 부모님 또는 주변사람들의 권유(17.2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3. 전공 선택 동기에 따른 전공 성취도 차이

연구대상자들의 전공 선택 동기에 따른 전공 성취도는 Table 3과 같다. 흥미에 맞을 거 갈아서(7.8점)를 선택한 학생들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적성이 맞을 거 갈아서(7.4점), 부모님 또는 주변사람들의 경력(7.1점), 점수에 맞춰서(7.0점), 취업 전망이 좋은 거 갈아서(6.9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학생들의 경우에도 전공 선택 동기는 흥미에 맞을 거 갈아서(7.7점)를 선택한 학생들의 전공 성취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적성이 맞을 거 갈아서(7.1점), 취업 전망이 좋을 거 갈아서(6.9점), 점수에 맞춰서(6.5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학생들의 경우도 흥미에 맞을 거 갈아서(7.9점)를 선택한 학생들의 전공 성취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적성이 맞을 거 갈아서(7.4점), 취업 전망이 좋을 거 갈아서(7.1점), 점수에 맞춰서(7.0점), 부모님 또는 주변사람들의 경력(7.0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2. The difference of major satisfaction by Major Selection Motivation

<table>
<thead>
<tr>
<th></th>
<th></th>
<th></th>
<th></th>
</tr>
</thead>
<tbody>
<tr>
<td>Aptitude</td>
<td>19.8±3.5</td>
<td>20.2±3.1</td>
<td>19.8±2.5</td>
</tr>
<tr>
<td>interest</td>
<td>19.0±2.1</td>
<td>19.8±1.5</td>
<td>19.1±2.3</td>
</tr>
<tr>
<td>employment prospect</td>
<td>17.2±1.8</td>
<td>18.1±1.1</td>
<td>17.9±2.9</td>
</tr>
<tr>
<td>Entrance examination scores</td>
<td>16.8±3.5</td>
<td>17.8±1.8</td>
<td>16.9±2.8</td>
</tr>
<tr>
<td>The advice of others</td>
<td>18.2±2.4</td>
<td>17.2±1.6</td>
<td>17.4±2.0</td>
</tr>
</tbody>
</table>

Table 3. The difference of major accomplishment by Major Selection Motivation

<table>
<thead>
<tr>
<th></th>
<th></th>
<th></th>
<th></th>
</tr>
</thead>
<tbody>
<tr>
<td>Aptitude</td>
<td>7.1±1.0</td>
<td>7.4±1.0</td>
<td>7.4±0.9</td>
</tr>
<tr>
<td>interest</td>
<td>7.7±1.1</td>
<td>7.9±0.5</td>
<td>7.8±1.0</td>
</tr>
<tr>
<td>employment prospect</td>
<td>6.9±1.0</td>
<td>7.1±1.0</td>
<td>6.9±1.1</td>
</tr>
<tr>
<td>Entrance examination scores</td>
<td>6.5±1.2</td>
<td>7.0±1.0</td>
<td>7.0±1.3</td>
</tr>
<tr>
<td>The advice of others</td>
<td>7.2±1.0</td>
<td>7.0±1.2</td>
<td>7.1±1.9</td>
</tr>
</tbody>
</table>
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 IV. 고 찰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대학에 재학중인 작업치료(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전공 선택 동기에 따른 전공 만족도 및 전공 성취도를 알아보고, 그를 통해 국내 작업치료 교육방안에 이바지하고자 하는데 있었다.

지식기반사회의 형성과 더불어 무한경쟁으로 변화하는 추세의 사회에 진출하려는 대학생들에게는 현재 국내 사회의 치열한 취업전쟁과 이로 인한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불안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그로인한 대학생들의 취업문제 또한 우리 사회의 주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대학의 전공을 선택할 시에도 학과의 취업률이 전반적으로 높고 있는 전공을 선택하려는 경향이 높아졌다(Kim, 2011).

이에 따라, 작업치료(학)과를 비롯한 보건계열학과들의 경우 입학하라는 학생들의 경쟁이 매우 치열해지고 있으며, 많은 수의 학생들이 대학입시에 수동적으로 자세를 잃고 전공 및 전공을 선택할 때도 학과의 취업률을 진학할 학과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Kim, 2011).

본 연구는 경북지역의 작업치료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결과를 일반화하기는 무리가 있다. 또한, 국가고시 합격 여부 및 졸업 후의 전공 만족도, 전공성취도에 관련해서는 조사하지 못하였기에 추후에 이러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V. 결론

본 연구는 현재 대학에 재학중인 경북지역의 작업치료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전공선택동기에 따른 전공 만족도 및 전공성취도를 알아보고자 설문지를
배포하고 자기가입식 방법으로 작성된 조사연구이다.

연구 결과, 자신의 전공을 선택함에 있어서 농동적으로 자신의 전공을 선택하고 학과에 입학한 학생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전공만족도와 전공성취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농동적인 자세 및 전공 선택 과정이 학과 생활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는 경북지역의 작업치료과 재학생만을 대상으로 조사되어졌기에, 이러한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그를 보완한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Abstract

A Study on the Major Satisfaction and Major Accomplishment Related on the Major Selection Motivation in Students of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Park, Ju-Hyung*, M.O.T., Kang, Sin-Uk*, M.O.T.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Kyungbuk College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how the major selection motivation impact on the Major Satisfaction and Major Accomplishment of students who major in occupational therapy.

Methods: Analyze survey of major characteristic from 75 students of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in Kyungbuk region. Compare and analyze the major accomplishment and major satisfaction related on the major selection motivation.

Results: Among a total of 75 questionnaires distributed, 66 copies that were answered properly were compared and analyzed. The students’ major satisfaction and achievement had a high tendency if their major selection motivation was based on their aptitude and interest, while their major satisfaction and achievement had a low tendency if their major selection was in accordance with the employment prospect, based on their entrance examination scores, or by others’ recommendations.

Conclusion: It was found that students had a positive major satisfaction and achievement when they actively selected the major by themselves, but it is considered that a further study is needed to complement the fact that there was a small control group in the current research.

Key Words: Major Selection Motivation, Major Satisfaction, Major Accomplishment
원예활동프로그램이 시설치매노인의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

김한나*, 박우권**

* 필브레인센터 작업치료실
** 경복대학교 작업치료과

국문초록

서론 본 논문의 목적은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원예활동프로그램이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론

연구대상은 경기도 소재 'P' 요양 시설기관을 이용하는 치매노인 1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의사에게 치매진단을 받은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10주 동안 주 1회(60분씩 총 10회)의 원예활동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전과 제공 후에 대상자의 우울증은 한국판 노인 우울척도 단축형(Geriatric Depression Scale Short Form Korea Version: GDSSF-K)을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결론

연구결과를 통해 연구결과를 통해 원예활동 프로그램은 치매 노인의 우울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원예활동 프로그램 전과 후에 우울증 감소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나이와 성별에 따른 우울감 차이도 유의미하였다.

주제어 원예활동프로그램, 시설치매노인, 우울감

I. 서 론


치매는 뇌가 기질적으로 손상되거나 파괴되어 전반적으로 지능, 학습, 언어 등의 고등 정신기능이 감퇴되는 복합적인 임상증후군이다. 이 질환의 증상으로 건방증이나 장기, 단기 기억력의 감퇴와 시간의 흐름, 지남력 장애, 언어장애, 시각적⋅청각적⋅촉각적 자극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갖게 된다. 이로 인해 하루에도 여러 차례 심리적 변화를 겪어오며 환경적 단서에 대한 조작 능력은 상실하게 되면서 매우 불안한 생활을 하게 된다.
반복되는 실수에 따른 부정적 반응과 함께 정신적 약화 및 자아 존중감 저하, 상실감, 사회적 역할상실과 지위의 저하, 배우자의 죽음, 가족관계의 변화 등의 원인으로도 우울을 겪게 된다 (Sung, & Kim, 2008).

조사에 따르면 지역사회 재가 노인의 46%,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의 58.6%, 시설거주노인의 71.3%가 우울증상을 겪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시설거주형태의 노인이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상당 수의 노인이 이러한 주거지 변화로 여러 감정을 겪게 되면서 우울을 느끼게 된다 (Kim, 2002; Lee, 2005).

보통 노년기는 우울은 우울증과 달리 기억력 비롯한 인지기능의 장애와 동반되면서 일상생활활동의 손상을 가져오고 독립된 생활에 손상을 가져온다. 정차 외부활동이 줄고 불면증이나 체중감소, 감정적 무감각 등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런 노년의 증상들은 조기에 발견하여 관리하면 증상이 개선되거나 일상생활기능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다 (Ji, Choi, & Cho, 2003). 그러나 보통 노인의 우울은 증상을 발견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치료도 쉽지 않다. 게다가 시설에 거주하는 치매노인의 경우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시설을 방문하기 때문에 치료가 시급하다. 공격성 행동과 불안을 비롯한 우울 등이 나타나기 쉬운 노인을 대상으로 원예활동프로그램에 의한 우울의 변화를 알아보고 의미 있는 방법으로 원예활동프로그램의 유용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처럼 원예활동은 정신의 기능이 약화된 노인에게 적합한 사회, 인지, 정서, 신체 기능의 증진을 향상시키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지만 대상이 다양하지 못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치매노인과 같은 특수한 대상군의 연구는 미비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설내 노인을 대상으로 원예활동프로그램에 의한 우울의 변화를 알아보고 의미 있는 방법으로 원예활동프로그램의 유용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원예프로그램이 치매노인의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2014년 10월부터 12월까지 10주 동안 경기도에 소재한 “P” 요양시설기관 이용자 중 본 연구에 참여를 희망하는 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대상자 선정 기준은 (1) 65세 이상인자 (2) 신경과전문의로부터 치매 진단 받은 자 (3) 일반적인 대화가 가능하고 3단계이상 지지 수평이 가능한자 (4) 본 연구를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자로 선정하였다.

2. 연구도구

1)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한국판 노인 우울 척도 단축형 (Geriatric Depression Scale Short Form Korea Version: GDSSF-K)은 Ki(1996)가 번안된 평가도구를 사용하였다. GDSSF-K평가도구는 총 15개 항목으로 (1), (5), (7), (11), (13)번 문항은 “아니오”일 때 1점을, 나머지 문항은 “예”일 때 1점으로 채점하는 양분 척도로 구성되
원예활동프로그램이 시설치매노인의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

<table>
<thead>
<tr>
<th>Session</th>
<th>Goal</th>
<th>Program</th>
</tr>
</thead>
<tbody>
<tr>
<td>1</td>
<td>Gardening friendly</td>
<td>moved planting chrysanthemum flower pots</td>
</tr>
<tr>
<td>2</td>
<td>Grass planting flowers in therapy garden</td>
<td></td>
</tr>
<tr>
<td>3</td>
<td>Chrysanthemum flower garden moved planting treatment</td>
<td></td>
</tr>
<tr>
<td>4</td>
<td>Planting grass in the treatment garden</td>
<td></td>
</tr>
<tr>
<td>5</td>
<td>Hydroponics using water Acacia</td>
<td></td>
</tr>
<tr>
<td>6</td>
<td>Using hydroponics haydeurobol</td>
<td></td>
</tr>
<tr>
<td>7</td>
<td>Using water culture bamboo</td>
<td></td>
</tr>
<tr>
<td>8</td>
<td>Potted succulents decorating</td>
<td></td>
</tr>
<tr>
<td>9</td>
<td>Potted indoor ornamental plants, decoration</td>
<td></td>
</tr>
<tr>
<td>10</td>
<td>Move potted poinsettias, Decoration</td>
<td></td>
</tr>
</tbody>
</table>

*Table 1. Horticultural Activities Program*

3) 측정 방법

연구방법은 10주 동안 주 1회씩, 1시간 동안 10회저 원예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원예프로그램은 활동분석(Activity Analysis) 후 그룹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는데 활동 전에 10분간 기본적인 소개, 40분간 활동, 10분간 활동 마무리하는 순으로 실시하였다. 프로그램은 처음 1~4주는 원예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고 쉽게 접할 수 있는 국화 화분 옮기기와 치료 정원에 국화 심기 등을 야외 치료정원에서 실시하였고, 활동이 적응 된 후 5~7주는 날씨와 노인들의 신체적 능력을 고려하여 실내에서 수경식물 가꾸기 및 야외 치료 정원에 심은 꽃에 물주기 등을 실시하였고, 8~10주는 다양한 실내식물 가꾸기 및 정원 산책 등 활동을 실시하였다(Table 1).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table>
<thead>
<tr>
<th>Item</th>
<th>Category</th>
<th>N</th>
</tr>
</thead>
<tbody>
<tr>
<td>Gender</td>
<td>M</td>
<td>6(40%)</td>
</tr>
<tr>
<td></td>
<td>F</td>
<td>9(60%)</td>
</tr>
<tr>
<td>Age</td>
<td>M</td>
<td>80.83±5.2</td>
</tr>
<tr>
<td></td>
<td>F</td>
<td>79.89±5.1</td>
</tr>
<tr>
<td>80대</td>
<td>8(53.3%)</td>
<td></td>
</tr>
<tr>
<td>70대</td>
<td>6(40%)</td>
<td></td>
</tr>
<tr>
<td>60대</td>
<td>1(6.7%)</td>
<td></td>
</tr>
</tbody>
</table>

*Table 3. Differences in depression though horticultural activities program*

<table>
<thead>
<tr>
<th></th>
<th>Mean</th>
<th>SD</th>
<th>T</th>
<th>P</th>
</tr>
</thead>
<tbody>
<tr>
<td>pre-test</td>
<td>9.80</td>
<td>2.274</td>
<td>7,203</td>
<td>.000*</td>
</tr>
<tr>
<td>post-test</td>
<td>6.67</td>
<td>3.498</td>
<td></td>
<td></td>
</tr>
</tbody>
</table>

*p<.05*
3)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18.0을 이용하여 연구대상 자의 특성은 평균, 백분율,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원예활동프로그램의 참여 전, 후 비교는 대응표본 T-test, 나이와 연령에 따른 차이는 독립표본 t-test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Ⅲ. 결 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는 총 15명으로 전원이 모든 회기에 참여하였다. 그 중 남성은 6명(40%), 여성은 9명(60%)이 있으며 연령은 80대가 8명(53.3%), 70대가 6명(40%), 60대가 1명(6.7%)이며 남성 평균연령 80.83±5.2세, 여성평균연령 79.89±5.1세였다(Table 2).

2. 원예활동프로그램 참여 전·후의 우울감 차이
원예활동프로그램 참여가 치매노인의 우울감에 영향을 준다는 가설을 확인하기 위하여, 참여 전과 참여 후의 우울감과 관련된 검사를 실시하였다. 결과로 초기 평가에서는 평균 9.80점이 나왔으며, 10주 원예활동프로그램 진행 후의 평가에서는 6.67점으로 활동후의 평균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값이 7.203으로 참여전과 참여후의 평균은 통계적으로 유의수준 하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3. 성별에 따른 우울감의 전·후 차이
성별에 따른 원예활동프로그램 참여 전과 후의 우울감 차이를 보기 위한 분석 결과, 참여 전의 t값은 2.500, 참여 후의 t값은 1.99로 참여 전과 참여 후에 남성과 여성 모두의 우울감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남성의 참여 전 평균값 8.78로 남성이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더 높게 나타났고, 참여 후의 평균값 역시 남성과 여성 각각 8.67, 5.33으로 남성이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참여 전·후의 남성 평균값의 차는 2.66, 참여 전·후의 여성 평균값의 차는 3.25로 여성이 높게 나타났다(Table 4).

4. 연령에 따른 우울감의 전·후 차이
원예활동프로그램 참여 전과 후에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기 위한 분석 결과, 참여 전의 t값은 -2.271, 참여 후의 t값은 -1.961로 80대 치매노인과 70대 치매노인에게 참여 전과 참여 후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80대 치매노인과 70대 치매노인의 각 참여운행프로그램의 참여 전과 후의 우울감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Table 5).

| Table 4. Differences in depression according to gender |
| --- | --- | --- | --- | --- | --- |
|        | Mean | SD | t | p |
|        | 80   | 70 | 80 | 70 |
| pre-test | 11.33 | 8.78 | 1.506 | 2.167 | 2.500 | .027* |
| post-test | 8.67 | 5.33 | 2.875 | 3.354 | 1.900 | .068* |

*p<.05

| Table 5. Differences in depression according to age (the seventies and eighty) |
| --- | --- | --- | --- | --- | --- |
|        | Mean | SD | t | p |
|        | 80   | 70 | 80 | 70 |
| pre-test | 8.88 | 11.33 | 1.885 | 2.160 | -2.271 | .042* |
| post-test | 5.50 | 8.63 | 3.071 | 3.251 | -1.961 | .073* |

*p<.05
여 전의 평균값이 8.88, 11.33으로 70대 치매노인이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더 높게 나타났고, 참여 후의 평균값 역시 80대 치매노인과 70대 치매노인이 각 5.50, 8.33으로 70대 치매노인이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참여 전 후의 80대 치매노인 평균값의 차는 3.38, 참여 전 후의 70대 치매노인의 평균값의 차는 2.50으로 80대 노인에게 높게 나타났다 (Table 5).

### IV. 논의

본 연구는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치매노인들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우울증의 변화를 알아봄으로서 정서적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한 의미 있는 중재 방법으로 원예활동의 유용성을 검증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 구 대상은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 중에서 의사로부터 치매진단을 받은 대화가 가능한 사람이며 실험에 동의한 15명을 선정하였다. 연구 도구는 GDSSF-K를 사용하였고 총 15개 항목으로 총점이 5점 이하는 정상, 6∼9점은 중등도 우울증상, 10점 이상은 우울증으로 진단한다. 본 연구 대상자들의 우울점수는 평균 9.8점으로 중등도 수준의 우울증상을 보이는 일상생활 수행이 가능 수준이었다. 우울증상에 따른 특별한 진단은 없었지만 우울증상에 대한 치료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여 중재가 요구되었다.

연구결과, 제공된 중재프로그램은 시설치매노인의 우울증상을 감소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는 원예활동프로그램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예활동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의 우울점수 평균 9.8에서 프로그램 이후에 6.67로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본 연구의 결과, 원예활동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의 우울점수가 70대가 11점으로 우울증 진단이 가능한 수준이었으나 원예프로그램 이후 점수는 8점으로 감소하였다. 우울 점수가 높았던 70대 집단에서 프로그램에 따른 우울 감소 효과가 80대보다 적게 나타남으로서 프로그램 효과성에 대해 우울증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것은 성별의 차이에서도 프로그램 전에 우울점 수가 높았던 남성 집단이 여성 집단보다 우울감소 폭 이 적게 나타남으로서 나이에 따른 우울감소 효과와 부부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는 모집단이 적어 일반화시키는데 한계가 있고, 단축형 우울 척도 검사 도구로 인해 정확한 우울중 진단에 제한이 있다. 또한 보다 체계적 입증을 위한 대조군이 설계되지 않은 점, 노인 개인의 특성다ifferences이 포함되어 있다는 제한점을 갖고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일반화하기 위해 더 많은 모집단 설계와 정밀한 검사 도구를 통한 우울중 진단, 우울중 외의 치매노인의 문제에 대한 치료적 중재 프로그램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

V. 결론

본 연구를 통해서 원예활동 프로그램은 시설치매노인의 우울감을 경감시키는데 긍정적인 변화를 확인하였다. 우울감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는 가운데 원예활동 프로그램은 여전히 정서적 개선을 위한 효과적인 중재 프로그램인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치매노인의 우울감 감소에 유용하며 남성보다 여성, 나이가 많음수록 더 효과적인 결과를 얻었다. 따라서 원예프로그램이 환자에게 정서적 안정과 능동적 시설치매노인의 적응을 돕는 치료적 적용으로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참고문헌


Kang, J. S. (2002). (The) Factors which influence the depression of the elderly –Focusing on low-income seniors-. Chung-Ang University.

Ki, B. S. (1996). A Preliminary Study for the Standardization of Geriatric Depression Scale Short Form-Korea Version. Korean Neuropsychiatric...
원예활동프로그램이 시설치매노인의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

19

Association, 35(2), 298-307.

Acad Adult Nurs, 12(3), 463-476.

Gerontological Society, 22(1), 159-172.


Industry Association, 6(2), 46-51.


Association for Geriatric Psychiatric, 10(1), 20-27.


Journal of Adult Nursing, 19(5), 104-114.


Abstract

The Effects of Horiticultural Activities Program on Depression of the Dementia Elderly at the Facility

Kim, Han na*, M.Ed. O.T., Park, Woo kuon**, M.Ad. O.T.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Feel & Fill your Brain Center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KyungBok College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the horticultural activity program on depression of the dementia elderly at the care facility.

Method: Research subjects was 15 people in senile dementia to use Gyeonggi material “P” care facilities. To target more than 65 years, which has received a diagnosis of dementia from the doctor. They were offered a gardening activity program for a total of 10 session that once a week (60 minutes) for 10 weeks. Depression Subject in before and after the providing program was assessed using the South Korea version of the elderly depressed scale truncated (Geriatric Depression Scale Short Form Korea Version: GDSSF-K).

Result: Horticultural activities program using the results of the study, was found to give a positive effect on depressive decline in elderly people with dementia.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reduction of the sense of depression before and after gardening activities program, the sense of depression according to the age and gender difference was also significant.

Discussion and Conclusion: Taken together the results of this study, gardening program because of the positive effect in reducing depression dementia elderly, it has been found to be effective in therapeutic applications for emotional stability. Therefore, it will be able to use to prevent emotional regression by developing a therapeutic program in consideration of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Key Words: Horiticultural activities program, Facility Dementia elder, Depression
뇌졸중 환자의 손재활을 위한 RAPAEL 스마트 글러브의 미치는 영향

부정아*, 장태용**, 최현세***, 양영애****, *****

* 경북대학교 작업치료학과  
**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 작업치료실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작업치료실  
**** 인제대학교 의생명공학대학 작업치료학과  
***** 인제대학교 고령자라이프디자인연구소

국문초록

본 논문은 뇌졸중 환자의 손 재활을 위한 가상 현실을 접목 시킨 RAPAEL 스마트 글러브 프로그램의 만족도를 조사하여 미치는 영향을 보고자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총 9명을 대상으로 RAPAEL 스마트 글러브를 처음 사용 후 만족도 조사를 한 후 2주 간 하루 30분 주 5회 중재 후 재조사를 실시하였다. 결과분석은 SPSS(ver.18.0) 통계분석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RAPAEL 스마트 글러브를 이용한 치료가 도움이 되었는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둘째, RAPAEL 스마트 글러브를 이용한 치료가 재미있었는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 다(p<0.05).
셋째, RAPAEL 스마트 글러브를 이용한 치료가 자발적 훈련 참여에 도움이 되었는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05).
넷째, RAPAEL 스마트 글러브를 이용한 치료가전반적으로 만족하는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를 보였다(p<0.05).

논의 및 결론
뇌졸중 환자 대상으로 손재활을 위한 가상현실을 접목시킨 RAPAEL 스마트 글러브 프로그램을 적용할 경우 환자의 치료적 재미와 전반적인 치료에 도움이 되며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하였다. 가상현실을 기반으로 한 치료방법으로 환자의 즐거움을 유도하는 환자중심의 접근법을 구현한 것에 의미가 있다.

주제어
뇌졸중, 가상현실, 만족도, RAPAEL 스마트 글러브

Corresponding author: Yang, Yeong-Ae(yeong-ayer@inje.ac.kr/Dept. of Occupational Therapy, College of Biomedical Science and Engineering, Inje University)
Received 4 October 2015; Revised version received 11 October 2015; Accepted 20 November 2015
I. 서 론


본 연구의 목적은 뇌졸중 환자의 손 재활을 위한 가상 현실을 접목 시킨 RAPAEL 스마트 클러브 프로그램의 만족도를 조사하여 비치는 영향을 보고자 한다(Fig. 1,2).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5년 8월 3일부터 8월 14일까지 서울시 소재 D병원에 내원한 환자 중 만성 뇌졸중으로 인한 편마비 진단을 받은 대상자로 한국판 간이 정신상태 검사(K-MMSE)에서 25점 이상인자, 손 재활을 위한 가상훈련의 경험을 없는 남성 5명, 여성 4명 중 20대 1명, 30대 1명, 40대 1명, 50대 1명, 60대 3명, 70대 2명으로 총 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뇌졸중 환자의 손 재활을 위한 RAPAEL 스마트 글러브의 미치는 영향

2. 검사도구

RAPAEL 스마트 글러브 사용 만족도를 설문지 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설문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RAPAEL 스마트 글러브를 이용한 치료가 도움이 되었는가?

둘째, RAPAEL 스마트 글러브를 이용한 치료가 재미있었는가?

셋째, RAPAEL 스마트 글러브를 이용한 치료가 자발적 훈련 참여에 도움이 되었는가?

넷째, RAPAEL 스마트 글러브를 이용한 치료가 전반적으로 만족하는가?

본 연구에서는 RAPAEL 스마트 글러브를 처음 사용 후 만족도 조사를 한 후 2주간 하루 30분 주5회 중재 후 재조사를 실시하였다. 데이터 처리는 SSPSS (ver.18.0)를 사용하였다. RAPAEL 스마트 글러브 사용 전 후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대응표본 t-test(parired t-test)를 이용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유의수준은 0.05이하로 하였다.

Ⅲ. 연구결과

뇌졸중 환자의 손 재활을 위한 RAPAEL 스마트 글러브 만족도 조사에서 RAPAEL 스마트 글러브를 이용한 치료가 도움이 되었는가?(Fig.3), RAPAEL 스마트 글러브를 이용한 치료가 재미있었는가?(Fig.4), RAPAEL 스마트 글러브를 이용한 치료가 전반적으로 만족하는가?(Fig.6)라는 조사에서는 유의한 변화가 나타났으며, RAPAEL 스마트 글러브를 이용한 치료가 자발적 훈련 참여에 도움이 되었는가?(Fig.5)라는 조사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뇌졸중 환자의 손 재활을 위한 가상현실을 접목시킨 RAPAEL 스마트 글러브 프로그램은 치료적 재미와 전반적 치료에 있어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1).
본 연구에서는 뇌졸중 환자 9명을 대상으로 손 재활을 위한 가상 현실을 접목 시킨 RAPAEL 스마트 글러브 프로그램의 처음 사용과 2주간 사용 후의 만족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RAPAEL 스마트 글러브를 이용한 치료가 도움이 되었는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5).

둘째, RAPAEL 스마트 글러브를 이용한 치료가 재미있었는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5).

셋째, RAPAEL 스마트 글러브를 이용한 치료가 자발적 혼란 참여에 도움이 되었는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05).

넷째, RAPAEL 스마트 글러브를 이용한 치료가 재활 치료 프로그램을 이용한 치료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5).

이상의 결과를 통해 뇌졸중 환자 대상으로 손 재활을 위한 가상 현실을 접목 시킨 RAPAEL 스마트 글러브 프로그램을 적용할 경우 환자의 치료적 재미와 전반적인 치료에 도움이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가상 현실을 이용한 뇌졸중 환자의 손 재활을 위한 연구가 눈에 띄지 않았는데 본 연구에서는 가상 현실을 이용한 RAPAEL 스마트 글러브 프로그램이 치료의 도움, 재미, 전반적인 치료에 영향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효율적인 변화를 이끌고 재활치료에서의 재미라는 환자 중심 접근법을 구현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Table 1. R apea l Smart Glo ve at pre and post intervention

<table>
<thead>
<tr>
<th></th>
<th>t</th>
<th>p</th>
</tr>
</thead>
<tbody>
<tr>
<td>pre Q1 - post Q1</td>
<td>-2.530</td>
<td>0.035</td>
</tr>
<tr>
<td>pre Q2 - post Q2</td>
<td>-4.000</td>
<td>0.004</td>
</tr>
<tr>
<td>pre Q3 - post Q3</td>
<td>1.512</td>
<td>0.169</td>
</tr>
<tr>
<td>pre Q4 - post Q4</td>
<td>2.828</td>
<td>0.022</td>
</tr>
</tbody>
</table>

본 논문에서는 뇌졸중 환자의 손 재활을 위해 가상 현실을 이용한 RAPAEL 글러브에 대하여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연구 시 설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짧은 시간동안 중재가 이루어졌고, 대상자 수가 적어 연구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이 있다.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장기적인 중재의 효과와 효과가 평가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나아가 다양한 종류의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개인과 그룹 활동 간의 참여 효과를 확인하는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여러 가지 재활치료 방법에 대한 근거 창출을 위한 노력과 새로운 치료 방법의 개발을 통해 뇌졸중 환자 개개인에게 적합한 재활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각기의 노력이 요구되며 한다.

참고문헌


Burdea, G. C. (2003). Virtual rehabilitation benefits and challenges. Methods of information in Medicine,


NEOFECT. Rapael smart rehabilitation instruction for user. 2014.
Abstract

A Study on Effect with RAPAEL Smart Gloves for Hand Rehabilitation of Stroke Patients

Boo, Jung-A*, Jang, Tae-Yong**, Choi, Hyun-Se***,
Yang, Yeong-Ae****,***** Ph.D, O.T.

*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Kyungbok University
** The Hallym University Kangdong Hospital
***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Bundang Hospital
****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College of Biomedical Science and Engineering, Inje University
***** Institute of aged life redesign, Inje University

Purpose: This research aims to examine the effect with RAPAEL smart gloves for hand rehabilitation of stroke patients.

Method: This research subjects included 9 chronic stroke patients who had no experience of virtual training and had scores over 25 on K-MMSE. Their satisfaction after using RAPAEL smart gloves was investigated, and the experiment examined again after it was conducted for 30 minutes a day, 5 times for 2 weeks. The research result confirmed that RAPAEL smart glove program using virtual reality helped treatment and had an influence on overall funness and treatment, and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p<0.05).

Result: First, RAPAEL smart glove is useful to treatment, proving that it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p<0.05) Second, they are funny to use RAPAEL smart glove for treatment, proving that it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p<0.05) Third, to use RAPAEL smart glove is vary helpful that they are participation in treatment themselves, proving that it had not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p>0.05) Fourth, they are satisfied that treat patients to use RAPAEL smart glove, proving that it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p<0.05)

Conclusion: This research confirmed that applying RAPAEL smart glove program integrating virtual reality helped stroke patients’ therapeutic funness and overall treatment for their hand rehabilitation.

Key Words: Chronic CVA, Virtual reality, Satisfaction, RAPAEL smart glove
경상남도의 노인인구와 노인복지여가시설의 현황

이보민*, 이두호**, 염철욱***, 전소현****

* 부산광역시 광역치매센터
** 인창병원 작업치료실
*** 인제대학교 일반대학원 작업치료학과
**** 인제대학교 작업치료학과

국문초록

연구목적 본 연구는 노인의 여가에 거점이 되는 노인복지여가시설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노인여가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방법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통계청에 등록된 자료들과 대한노인회에 등록된 경로당, 각 시군구에 등록된 노인복지관, 노인대학에 대한 자료를 집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경상남도의 노인복지여가시설 현황으로 첫째, 경상남도 내 경로당 현황은 김해시가 526개로 가장 많았고 회원 수는 마산합포구, 회원가 24,27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구대비 회원 수는 함양시가 가장 많았다. 둘째, 경상남도 내 시·군 별 노인복지관 현황은 노인복지관 20개 시·군 중 총 11곳으로 창원시의창구, 성산구, 마산합포구, 회원가, 진해구,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 거장군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은 전무한 상황이다. 셋째, 경상남도 내 시·군 별 노인대학 현황은 총 126곳 중 김해시가 19곳으로 가장 많았다.

결론

경상남도의 노인복지여가시설 현황으로, 경로당 현황은 김해시가 가장 많았고, 노인복지관은 창원시의창구, 성산구, 마산합포구, 회원가, 진해구,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 거장군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은 전무한 상황이며 노인대학은 김해시가 가장 많았다. 따라서 노인복지여가시설이 도심에 집중되어있어 지역적 균형을 맞추 필요가 있다.

주제어 경상남도, 노인, 노인복지여가시설

Corresponding author: Lee, Bo-Min(lbmblbm128@naver.com/Dept. of Occupational Therapy, Busan Metropolitan Center)

Received 9 September 2015; Revised version received 17 October 2015; Accepted 19 November 2015

I. 서 론


이러한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노인의 삶의 질을


위협하는 여러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노인들은 각종 제도에서 소외되고 있으며, 현대사회 발전의 벽에 부딪히는 노인들이 증가하여 전반적인 물질문명의 발달 속에서 새로운 문제를 낳고 있다.

노인복지법에 의하면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가족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분류된다. 노인가족복지시설로는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 휴양소를 명시하고 있다.

노인복지관은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 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 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며, 경로당은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 교환과 그 밖의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정의한다. 노인 교실은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균등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전반한 취미생활·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 그 밖의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며, 노인 휴양소는 노인들에게 대하여 심신의 휴양과 관련한 휴양시설·여가시설 그 밖의 편의시설을 단기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정의한다.

노인복지여가시설은 그 동안 노인들의 휴식, 오락, 친목의 유일한 거점으로써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으며, 노인들의 사회참여에 대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경상남도 내 노인의 여가에 기여되기는 노인복지여가시설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노인여가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Ⅱ. 연구자료 및 방법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통계청에 등록된 자료들과 대한노인회에 등록된 경로당, 각 시군구에 등록된 노인복지관, 노인대학에 대한 자료를 집계, 분석하였다.
Ⅲ. 본론

1. 도별 고령인구 비율

2014년 기준 전국의 고령인구 비율은 12.70%로 고령사회에 다가가고 있다. 2014년 경기도(10.15%)를 제외한 나머지 도에서는 고령인구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경기도와 경상남도를 제외한 도의 경우, 고령사회에 접근했다.

### Table 1. Number and percentage of the elderly population in city and town

<table>
<thead>
<tr>
<th>Division</th>
<th>2011</th>
<th>2012</th>
<th>2013</th>
<th>2014</th>
</tr>
</thead>
<tbody>
<tr>
<td>Nationwide</td>
<td>5,700,972(11.24)</td>
<td>5,980,060(11.74)</td>
<td>6,250,986(12.22)</td>
<td>6,520,607(12.70)</td>
</tr>
<tr>
<td>Gyeonggido</td>
<td>1,072,462(8.98)</td>
<td>1,135,242(9.39)</td>
<td>1,196,523(9.77)</td>
<td>1,254,445(10.50)</td>
</tr>
<tr>
<td>Kangwon</td>
<td>233,219(15.18)</td>
<td>241,694(15.71)</td>
<td>249,538(16.18)</td>
<td>255,930(16.57)</td>
</tr>
<tr>
<td>Chungcheongbukdo</td>
<td>209,473(13.40)</td>
<td>215,245(13.75)</td>
<td>222,188(14.13)</td>
<td>228,900(14.50)</td>
</tr>
<tr>
<td>Chungcheongnamdo</td>
<td>315,079(14.99)</td>
<td>309,840(15.27)</td>
<td>320,195(15.64)</td>
<td>330,807(16.04)</td>
</tr>
<tr>
<td>Jeollabukdo</td>
<td>291,919(15.58)</td>
<td>303,586(16.21)</td>
<td>312,764(16.70)</td>
<td>322,626(17.24)</td>
</tr>
<tr>
<td>Jeollanamdo</td>
<td>366,349(18.61)</td>
<td>366,524(19.19)</td>
<td>374,565(19.64)</td>
<td>383,808(20.14)</td>
</tr>
<tr>
<td>Gyeongsangbukdo</td>
<td>424,386(15.72)</td>
<td>437,519(16.21)</td>
<td>452,417(16.76)</td>
<td>467,352(17.30)</td>
</tr>
<tr>
<td>Gyeongsangnamdo</td>
<td>999,530(12.07)</td>
<td>1,041,831(12.50)</td>
<td>431,645(12.95)</td>
<td>449,017(13.40)</td>
</tr>
</tbody>
</table>

### Table 2. Elderly Population Status of Gyeongsangnamdo

<table>
<thead>
<tr>
<th>Division</th>
<th>Elderly population ratio</th>
<th>Elderly Population number</th>
</tr>
</thead>
<tbody>
<tr>
<td>Changwon</td>
<td>Yichang-gu 7.00%</td>
<td>34,778</td>
</tr>
<tr>
<td></td>
<td>Seongsan-gu 10.34%</td>
<td>30,225</td>
</tr>
<tr>
<td></td>
<td>Misanhapgo-gu 13.24%</td>
<td>52,521</td>
</tr>
<tr>
<td></td>
<td>Masanhoewon-gu 13.24%</td>
<td>52,521</td>
</tr>
<tr>
<td></td>
<td>Jinhae-gu 10.84%</td>
<td>19,731</td>
</tr>
<tr>
<td></td>
<td>Jinju 13.52%</td>
<td>45,998</td>
</tr>
<tr>
<td></td>
<td>Tongyeong 14.03%</td>
<td>19,560</td>
</tr>
<tr>
<td></td>
<td>Sacheon 17.54%</td>
<td>20,427</td>
</tr>
<tr>
<td></td>
<td>Gimhae 8.31%</td>
<td>43,802</td>
</tr>
<tr>
<td></td>
<td>Miryang 22.42%</td>
<td>39,971</td>
</tr>
<tr>
<td></td>
<td>Geoje 7.80%</td>
<td>19,388</td>
</tr>
<tr>
<td></td>
<td>Yangsan 20.73%</td>
<td>23,225</td>
</tr>
<tr>
<td></td>
<td>Uiryeong 32.21%</td>
<td>9,407</td>
</tr>
<tr>
<td></td>
<td>Haman 19.43%</td>
<td>13,354</td>
</tr>
<tr>
<td></td>
<td>Changnyeong 26.08%</td>
<td>16,563</td>
</tr>
<tr>
<td></td>
<td>Goseong 25.20%</td>
<td>14,092</td>
</tr>
<tr>
<td></td>
<td>Namhae 33.40%</td>
<td>15,577</td>
</tr>
<tr>
<td></td>
<td>Hadong 26.79%</td>
<td>14,172</td>
</tr>
<tr>
<td></td>
<td>Sancheon 31.50%</td>
<td>11,294</td>
</tr>
<tr>
<td></td>
<td>Hanyang 29.54%</td>
<td>11,989</td>
</tr>
<tr>
<td></td>
<td>Geochang 24.10%</td>
<td>15,214</td>
</tr>
<tr>
<td></td>
<td>Hapcheon 33.26%</td>
<td>16,784</td>
</tr>
</tbody>
</table>

### Table 3. Silver hall Status of Gyeongsangnamdo

<table>
<thead>
<tr>
<th>Division</th>
<th>Silver hall number</th>
<th>Members</th>
</tr>
</thead>
<tbody>
<tr>
<td>Changwon</td>
<td>Yichang-gu 334</td>
<td>11,682</td>
</tr>
<tr>
<td></td>
<td>Seongsan-gu 444</td>
<td>24,271</td>
</tr>
<tr>
<td></td>
<td>Jinhae-gu 175</td>
<td>8,981</td>
</tr>
<tr>
<td></td>
<td>Jinju 504</td>
<td>20,672</td>
</tr>
<tr>
<td></td>
<td>Sacheon 330</td>
<td>15,219</td>
</tr>
<tr>
<td></td>
<td>Goseong 306</td>
<td>15,577</td>
</tr>
<tr>
<td></td>
<td>Miryang 402</td>
<td>16,912</td>
</tr>
<tr>
<td></td>
<td>Geoje 300</td>
<td>10,348</td>
</tr>
<tr>
<td></td>
<td>Yangsan 265</td>
<td>9,903</td>
</tr>
<tr>
<td></td>
<td>Haman 339</td>
<td>11,479</td>
</tr>
<tr>
<td></td>
<td>Changnyeong 389</td>
<td>13,313</td>
</tr>
<tr>
<td></td>
<td>Goseong 306</td>
<td>15,577</td>
</tr>
<tr>
<td></td>
<td>Namhae 250</td>
<td>14,286</td>
</tr>
<tr>
<td></td>
<td>Hadong 357</td>
<td>11,303</td>
</tr>
<tr>
<td></td>
<td>Sancheon 334</td>
<td>10,690</td>
</tr>
<tr>
<td></td>
<td>Hanyang 393</td>
<td>11,539</td>
</tr>
<tr>
<td></td>
<td>Geochang 426</td>
<td>12,415</td>
</tr>
<tr>
<td></td>
<td>Hapcheon 514</td>
<td>14,679</td>
</tr>
</tbody>
</table>

### Table 3. Silver hall Status of Gyeongsangnamdo

<table>
<thead>
<tr>
<th>Division</th>
<th>Silver hall number</th>
<th>Members</th>
</tr>
</thead>
<tbody>
<tr>
<td>Changwon</td>
<td>Yichang-gu 334</td>
<td>11,682</td>
</tr>
<tr>
<td></td>
<td>Seongsan-gu 444</td>
<td>24,271</td>
</tr>
<tr>
<td></td>
<td>Jinhae-gu 175</td>
<td>8,981</td>
</tr>
<tr>
<td></td>
<td>Jinju 504</td>
<td>20,672</td>
</tr>
<tr>
<td></td>
<td>Sacheon 330</td>
<td>15,219</td>
</tr>
<tr>
<td></td>
<td>Goseong 306</td>
<td>15,577</td>
</tr>
<tr>
<td></td>
<td>Miryang 402</td>
<td>16,912</td>
</tr>
<tr>
<td></td>
<td>Geoje 300</td>
<td>10,348</td>
</tr>
<tr>
<td></td>
<td>Yangsan 265</td>
<td>9,903</td>
</tr>
<tr>
<td></td>
<td>Haman 339</td>
<td>11,479</td>
</tr>
<tr>
<td></td>
<td>Changnyeong 389</td>
<td>13,313</td>
</tr>
<tr>
<td></td>
<td>Goseong 306</td>
<td>15,577</td>
</tr>
<tr>
<td></td>
<td>Namhae 250</td>
<td>14,286</td>
</tr>
<tr>
<td></td>
<td>Hadong 357</td>
<td>11,303</td>
</tr>
<tr>
<td></td>
<td>Sancheon 334</td>
<td>10,690</td>
</tr>
<tr>
<td></td>
<td>Hanyang 393</td>
<td>11,539</td>
</tr>
<tr>
<td></td>
<td>Geochang 426</td>
<td>12,415</td>
</tr>
<tr>
<td></td>
<td>Hapcheon 514</td>
<td>14,679</td>
</tr>
</tbody>
</table>
2014년 기준 가장 높은 고령인구 비율 도는 전라남도(20.14%), 경상북도(17.30%), 전라북도(17.24%), 강원도(16.57%) 순으로 나타났으며, 고령인구 수는 경기도(1,254,445명), 경상북도(467,352명), 경상남도(449,017명), 전라남도(383,808명) 순으로 나타났다.

2. 경상남도 내 고령인구 현황

경상남도 내 고령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남해군(33.40%)으로 나타났으며, 함안군(33.26%), 의령군(32.21%), 산청군(31.50%) 순으로 집계되었다. 전반 고령인구 수는 마산합포구(52.521명)로 가장 많았으며, 진주시(45,998명), 김해시(38,902명), 양산시(30,225명) 순으로 집계 되었다.

현재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곳은 의창구·성산구, 거제도, 김해시, 양산시, 진해구, 마산합포구·회원구, 진주시, 고령사회에 접어든 곳은 동양시, 사천시, 함안군이다. 나머지 시·군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였다.

3. 경상남도 내 시·군 별 경로당 현황

경로당 수로 김해시(526개), 함안군(514개), 마산합포구·회원구(444개) 순으로 집계되었으며, 회원수는 마산합포구·회원구(24,921명), 진주시(20,567명), 함안군(16,912명), 김해시(16,576명) 순으로 동등 되어있었다. 인구대비 회원수는 함양군, 산청군, 남해군, 의령군 순으로 많았다.

4. 경상남도 내 시·군 별 노인복지관 현황

노인복지관은 20개 시·군 중 11곳으로 창원시의 창구, 성산구 마산합포구·회원구, 진해구, 진주시, 진주시, 장포구, 양산시, 진주군, 공주군, 성북구, 의창구·성산구, 그리고 경상북도의 경주시, 경산시, 경주시, 경주시, 경주시에 위치하고 있다.
김해시, 양산시, 거창군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은 전무한 상황이다.

5. 경상남도 내 시·군 별 노인대학 현황

경상남도 내 노인대학수는 총 126곳으로 조사되었 다. 그 중 김해시가 19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창원시 마산합포구·회원구, 진주시가 12곳, 거제시 10곳으로 파악되었다. 가장 적은 곳은 창녕군으로 1곳의 노인대학이 운영되고 있다.

Ⅳ. 결론 및 고찰

본 연구는 노인 여가에 거점이 되는 노인복지여가 시설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노인여가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경상남도의 고령인구비율은 8개 도 중 7번째로 낮은 편지만, 고령인구의 수는 도 중 세 번째로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노인의 여가에 대한 관심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하고 있다. 통계청에 입계된 노인복지여가시설 65,665개 중 경상남도는 7,215개로 10.98%를 차지하고 있으나, 부족한 실정이다.

노인복지여가시설 중 경로당은 김해시가 가장 많았고, 노인복지관은 창원시의창구·성산구 마산합포구·회원구,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 거창군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은 전무한 상황이며 노인대학은 김해시가 가장 많았다. 이처럼, 노인복지여가시설이 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주로,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에 집중되어있다. 농촌지역의 경우, 경로당에만 의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노인복지여가시설의 지역적 균형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물론, 노인복지여가시설의 수로 노인의 여가의 질에 대해 파악할 수 없지만, 노인여가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은 파악할 수 있다. 노인여가시설이 부족하면 접근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적어 질 적인 여가를 즐길 기회가 좁아질 것을 의미한다. 노인의 여가는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것이며, 베이비붐 세대 등 여가에 관심이 많은 노인들이 생겨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인복지여가시설이 부족함은 노인 여가의 질을 낮출 뿐만 아니라, 노인여가에 대한 인식개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물론, 본 연구는 노인복지법에서 제시하는 노인복지여가시설의 수만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에 대한 점적인 현황과 시설기관들의 여가에 대한 사업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고령화와 노인의 여가생활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시사하고 있으며, 노인여가시설 및 여가공간에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가 되리라 사료된다.

참고문헌


Abstract

The Present Situation Analysis on Population of Elderly and Elderly Welfare Leisure Facility of Gyeongsangnamdo

Lee, Bo-Min*, Lee, Doo-Ho**, Yeom, Choul-Wuk***, Jeon, So-Hyun****

* Busan Metropolitan Dementia Center  
**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In-chang Hospital  
***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Inje graduate school  
****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Inje University

Objective: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analysis of the present situation on welfare for the aged leisure facility based on elderly leisure and to emphasis the important of elderly leisure and to provide available basic data.

Methods: This study find the total and analysis of the data which register on National Statistical Office from 2012 to 2015 and the silver hall which register on Korean Senior Citizens Association and the Seniors Welfare Center which register on each cities and towns and senior class.

Results: The analysis result was the most presented, silver hall of Gimhae 526unit, member number of Masan Happongou · Hoepongu 24,271people. The number of members against population, Hamyang have the largest membership. second, seniors welfare center which register on each cities and towns in Gyeongsangnamdo had 20. There were no Elderly Welfare Leisure Facility except in Changwon Yichang-gu · Seongsan-gu, Masan Happongou · Hoepon-gu, Jinhae-gu, Jinju, Gimhae, Yangsan, Geoechang. Third, senior class which register on each cities and towns in Gyeongsangnamdo had total 126. Gimhae had the highest number of senior class.

Conclusion: Elderly leisure facilities in the state of Gyeongsangnam-do, Gimhae had the highest number of silver hall and senior class as well. There were no elderly welfare leisure facility except in Changwon Yichang-gu · Seongsan-gu, Masan Happongou · Hoepon-gu, Jinhae-gu, Jinju, Gimhae, Yangsan, Geoechang. Therefore, the elderly leisure facilities is necessary to align the regional balance because it is concentrated in the city center.

Key Words: Elderly, Elderly welfare leisure facility, Gyeongsangnamdo
주양육자에 따른 아동발달 수준 비교 연구: 베일리 발달검사Ⅲ

이혜진*, 김정재**, 최주원***, 엽희정****, 양영애*****

* 인제대학교 일반대학원 재활과학
**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 작업치료실
*** 부산성모병원 작업치료실
**** 인제대학교 일반대학원 작업치료학과
***** 인제대학교 의생명공학대학 작업치료학과
****** 인제대학교 고령자라이프리디자인연구소

국문초록

연구목적
본 연구는 조부모가 주양육자인 아동과 부모가 주양육자인 아동들의 발달검사의 결과를 통해 유의한 차이를 비교하여 관련 특성 요인들이 주 양육자에 의해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 주요한 요인은 무엇인지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2013년 1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부산소재지 K병원 작업치료실에 내원하여 발달검사를 시행한 아동 139명을 대상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과 베일리 영유아 발달검사 결과 값 사이의 상관관계는 주양육자에서 cognition, language, motor, social emotional에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2. 주양육자에 따른 베일리 영유아 발달검사 결과 값 간의 상관관계는 주양육자가 부모인 경우 cognition과 language, motor와 social emotional, language와 motor간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3. 주양육자에 따른 베일리 영유아 발달검사 결과 값 간의 상관관계는 주양육자가 조부모인 경우 cognition과 language에서만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4. 주양육자에 따른 집단 간 평균비교에서는 language와 motor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결론
본 연구에 결과를 종합해보면 주양육자의 형태에 따라 아동의 발달수준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향후 양육형태 및 다양한 양육방식 등을 확인하여 아동의 발달수준의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가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주제어 주양육자, 베일리발달검사, 아동발달검사

I. 서 론

현대의 아동들은 과거보다 훨씬 다양한 가족구조에서 성장하고 있다. 그 결과 자신을 낳아준 양부모의 양육을 받는 아동의 비율은 감소하면서 그 외의 다양한 형태의 양육을 제공받는 아동들의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이다(Ok, 2003).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활발해 지고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자연히 대리양육자 내지는 양육의 조력자로서의 조부모에 대한 관심이 커지기 시작했다(Kim, & Jeon, 2010). 이러한 조부모에 대한 관심과 함께 조손가족의 수가 증가하면서 조손가족에 대한 연구는 물론 조손 일반에 대해 학술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조손가족은 1995년에 실시된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조손가족이 익숙한 가족형태로 자리 잡으면서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들은 건강문제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새로운 육아법이나 교육환경 그리고 손자녀의 심리사회적 특성들에 관한 지식 및 경험의 부족이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에 매우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조손가족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손자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비해 조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다수를 이루고 있으며, 조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주로 조부모의 양육부담, 스트레스, 우울 등 부정적인 정신건강문제와 생활 만족도 등을 다루고 있다(Kang, 2010; Kim, Woo, & Kim, 2012; Song, & Lee, 2011; Yang, Rim, & Oh, 2008; Lee, & Lee, 2009; Lee, Park, & Jang, 2010). 손자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자아정체감이나 우울 및 스트레스 등과 같은 정신건강문제, 문제행동, 적응등을 다루고 있다(Lee, 2010; Jeong, 2013; Choi, 2010; Park, & Kim, 2008; Kim, 2004; Jeon, & Kim, 2011). 이와 같이 조손가족에 대한 선행연구들에서는 조손가족의 부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온 것을 알 수 있다.


베일리 영유아 발달검사는 유아의 중추신경계의 성숙도를 평가하는 주기적인 평가도구로 유용하며, 아동의 인지, 운동 발달의 평가를 위해 널리 쓰이고 있다. 생후 16일에서 42개월 영유아의 발달적 기능을 평가하는 도구로서 영유아의 정상적인 발달의 특정적 행동을 확인하기 위해 발달적 연구와 이론을 기초로 구성하였다. 검사는 아동의 발달 기능을 평가하여 현재 아동을 향후 아동들과 비교하였을 때 어느 수준의 발달을 보이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준다. 현재 한 국인상에서의 아동을 대상으로 베일리 영유아 발달 검사 도구를 사용한 연구들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부모가 주양육자인 아동과 부모가 주양육자인 아동들의 발달검사의 결과를 통해 유의한 차이를 비교하여 관련 특성 요인들이 주양육자에 의해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 주요한 요인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의 연구를 통해 지역사회 복지자원에서의 조손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사회적 지원 그리고 양육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얻을 수 있기 희망한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3년 1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부산 소재지 K병원 작업치료실에 내원하여 발달 검사를 시행한 아동 139명을 대상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실시하였다.
2. 평가도구

1) Bayley 영유아 발달검사 (Ⅲ)

Bayley-Ⅲ는 생후 16일에서 42개월 영유아의 발달적 기능을 평가하는 도구이다. 검사자는 검사도구를 가지고 아동과 일대일로 문항에서 요구하는 수행을 하여 수행 여부에 따라 1점과 0점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인지척도 91문항, 언어척도 97문항, 운동척도 138문항으로 구성되어있고 월령 집단별 시작점 문항이 A에서 Q의 17단계로 각기 다르게 구분되어 있다. 처음 시작점 3문항에서 모두 1점씩 획득하지 못하면 이전 월령의 시작점으로 돌아가 시행하여야 하고 연속된 다섯 개의 문항에서 실패하면 검사를 중지한다. 문항은 가능한 순서대로 시행하여야 하고 문항마다 시행지침에 정해진 시도 횟수와 유아나 아동의 자세가 정해져 있으며 검사 문항들 중 몇몇 문항은 시간제한이 있어 초시계로 측정해야 한다. 검사 후 아동의 원점수와 환산점수, 합산점수를 측정한다. 원점수는 시작점 이전 문항과 아동이 성공한 문항 수의 합이다. Bayley-Ⅲ는 하위검사들 rkse에 문항수가 다르므로 원점수를 통해서 각 하위영역의 점수를 비교할 수 없다. 그러므로 환산점수(scaled score) 및 합산점수(composite score)를 통해 하동의 하위적도 간의 점수 또는 평균의 점수를 비교한다.

평가도구의 반분 신뢰도는 인지척도.91, 언어척도.93, 운동척도.92이고, 사회-정서척도의 감각처리항목.83, 사회-정서항목.83이며, 적응행동척도는 하위 10개 영역이.75-.98이내로 나타나 모든 척도에서 높은 신뢰도를 나타낸다. 평가-재평가의 신뢰도는 인지척도.81, 언어척도.87, 운동척도.83으로 통계적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Park, 2010).

3.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처리는 SPSS version 18.0을 사용하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변수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베일리 영유아 발달검사 결과값의 상관관계는 피어슨 상관관계, 양육자 형태의 집단 간 결과값의 상관관계는 스케일 상관관계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양육자에 따른 집단 간 평균 비교는 독립표본 검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p<.05)

### III.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총 139명의 대상자 중 양육자가 부모인 경우가 120명(86.3%), 양육자가 조부모인 경우가 19명(13.7%)으로 양육자가 부모인 경우가 현저히 많았고, 성별은 남아 81명(58.3%), 여아 58명(41.7%)으로 남아가 많았다. 재태기간은 37주 이상 66명(47.5%), 37주 미만 73명(52.5%)이고, 분만형태는 제왕절개 분만인 경우가 88명(63.3%), 자연분만 51명(36.7%)으로 제왕 절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thead>
<tr>
<th>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39)</th>
</tr>
</thead>
<tbody>
<tr>
<td>Characteristic</td>
</tr>
<tr>
<td>----------------</td>
</tr>
<tr>
<td>Main fosterers</td>
</tr>
<tr>
<td></td>
</tr>
<tr>
<td>Gender</td>
</tr>
<tr>
<td></td>
</tr>
<tr>
<td>Gestational age at birth (weeks)</td>
</tr>
<tr>
<td></td>
</tr>
<tr>
<td>Types of delivery</td>
</tr>
<tr>
<td></td>
</tr>
</tbody>
</table>

2. 일반적 특성과 베일리 영유아 발달검사 결과값의 상관관계

일반적 특성과 베일리 영유아 발달검사 결과값(발달 수준 점도) 사이의 상관관계 검사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주양육자는 cognitive (r=-.294, p<.01), language (r=-.503, p<.01), mo-
tor (r=-.326, p<.01), social emotional (r=-.184, p<.05)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또한 성별과 social emotional (r=.185, p<.05), 재태기간과 language (r=.210, p<.05) 사이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고, 그 밖의 영역에서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주양육자가 조부모일 경우, cognitive과 language (r=.656, p<.01)에만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4).

### Table 2. Correlation of General Characteristics and BSID Scores

<table>
<thead>
<tr>
<th>Characteristic</th>
<th>Cognitive</th>
<th>Language</th>
<th>Motor</th>
<th>Social Emotional</th>
</tr>
</thead>
<tbody>
<tr>
<td>Main fosterers</td>
<td>-.294**</td>
<td>-.503**</td>
<td>-.326**</td>
<td>-.184*</td>
</tr>
<tr>
<td>Gender</td>
<td>.000</td>
<td>.106</td>
<td>-.017</td>
<td>.185*</td>
</tr>
<tr>
<td>Gestational age at birth (weeks)</td>
<td>.018</td>
<td>.210*</td>
<td>.125</td>
<td>.098</td>
</tr>
<tr>
<td>Types of delivery</td>
<td>.068</td>
<td>.034</td>
<td>.007</td>
<td>.051</td>
</tr>
</tbody>
</table>

*p<.05  **p<.01

### Table 3. Correlation of BSID Scores According to Caregivers(parents)

<table>
<thead>
<tr>
<th>Characteristic</th>
<th>Cognitive</th>
<th>Language</th>
<th>Motor</th>
<th>Social Emotional</th>
</tr>
</thead>
<tbody>
<tr>
<td>Cognitive</td>
<td>Spearman's correlation</td>
<td>.397**</td>
<td></td>
<td></td>
</tr>
<tr>
<td>Language</td>
<td>Spearman's correlation</td>
<td>.286**</td>
<td>.427**</td>
<td></td>
</tr>
<tr>
<td>Motor</td>
<td>Spearman's correlation</td>
<td>.210*</td>
<td>-.002</td>
<td>.162</td>
</tr>
</tbody>
</table>

*p<.05  **p<.01

### Table 4. Correlation of BSID Scores According to Caregivers(grandparents)

<table>
<thead>
<tr>
<th>Characteristic</th>
<th>Cognitive</th>
<th>Language</th>
<th>Motor</th>
<th>Social Emotional</th>
</tr>
</thead>
<tbody>
<tr>
<td>Cognitive</td>
<td>Spearman's correlation</td>
<td></td>
<td></td>
<td></td>
</tr>
<tr>
<td>Language</td>
<td>Spearman's correlation</td>
<td>.656**</td>
<td></td>
<td></td>
</tr>
<tr>
<td>Motor</td>
<td>Spearman's correlation</td>
<td>.436</td>
<td>.357</td>
<td></td>
</tr>
<tr>
<td>Social emotional</td>
<td>Spearman's correlation</td>
<td>-.116</td>
<td>.285</td>
<td>-.279</td>
</tr>
</tbody>
</table>

*p<.05  **p<.01

### Table 5. Comparison of Average According to Caregivers

<table>
<thead>
<tr>
<th>Characteristic</th>
<th>N</th>
<th>M±SD</th>
<th>t</th>
<th>p</th>
</tr>
</thead>
<tbody>
<tr>
<td>Cognitive</td>
<td>Parents 120</td>
<td>3.88±.34</td>
<td>1.951</td>
<td>.066</td>
</tr>
<tr>
<td></td>
<td>Grandparents 19</td>
<td>3.84±.43</td>
<td>2.538</td>
<td>.020</td>
</tr>
<tr>
<td>Language</td>
<td>Parents 120</td>
<td>3.47±.90</td>
<td>3.720</td>
<td>.001</td>
</tr>
<tr>
<td></td>
<td>Grandparents 19</td>
<td>2.84±.11</td>
<td></td>
<td></td>
</tr>
<tr>
<td>Motor</td>
<td>Parents 120</td>
<td>3.84±.44</td>
<td>2.538</td>
<td>.020</td>
</tr>
<tr>
<td></td>
<td>Grandparents 19</td>
<td>3.31±.88</td>
<td></td>
<td></td>
</tr>
<tr>
<td>Social emotional</td>
<td>Parents 120</td>
<td>3.64±.77</td>
<td>1.941</td>
<td>.065</td>
</tr>
<tr>
<td></td>
<td>Grandparents 19</td>
<td>3.21±.91</td>
<td></td>
<td></td>
</tr>
</tbody>
</table>

*p<.05  **p<.01

4. 주양육자에 따른 집단 간 평균 비교

주양육자에 따른 집단 간 평균 비교는 <Table 5>와 같다. leavene의 등분산 검정 결과 등분산이 가정 되지 않았고, language (p=0.001)와 motor (p=0.020)에서만 두 집단간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IV. 고찰

본 연구는 양육자의 형태에 따른 정상 아동의 발달 수준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2013년 1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부산 K병원 작업치료실 내원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베일리 발달검사의 결과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1995년에 실시된 인구주택총조사에서 하나의 가족 유형으로 조손가족이 나타나게 되었으며, 이러한 조손가족의 증가로 인하여 손자녀 조부모 대상의 연구는 많았으나, 조손가를 양육하는 족의 아동에 관한 연구는 드물었다. 이에 본 연구는 양육자의 형태에 따른 아동의 발달 수준을 비교하고자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양육자가 부모인 경우가 120명으로 조부모가 양육자인 19명보다 훨씬 많은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형태는 조손가족이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아동의 양육자가 부모가 월등히 많은 것으로 알 수 있고 당연한 결과이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베일리 영유아 발달검사 결과 값 사이의 상관관계에서는 양육자의 형태에서 cognition, language, motor, social emotional에서 모두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양육자가 조부모의 경우 전체적으로 항목의 점수가 낮은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양육자의 형태가 아동의 발달 수준의 영향을 미친다고 알 수 있습니다.

성별과 social emotional에서도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는데, 남아보다 여아의 경우 social emotion의 점수가 높은 것으로 알 수 있다. 재태기간에서도 language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미숙아의 양육 발달 저하에 대해서 확인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주양육자에 따른 베일리 영유아 발달검사 결과 값 간의 상관관계에서 양육자의 부모인 경우 cognition과 language, motor와 social emotional, language와 motor간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상호작용들이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주 양육자가 조부모일 경우에는 양육자가 부모인 경우와 같은 cognition과 language에서만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조부모의 양육에서 언어 사용이 인지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주양육자 형태에 따라 아동의 발달 수준의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되었으며, 추후 더 많은 아동 대상자들로 주 양육자의 영양방식까지 확인 할 수 있는 인터뷰 등과 함께 좀 더 자세한 일반적 정보를 이용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가장 큰 제한점으로 베일리 영유아 발달검사를 통하여 아동의 발달 수준을 비교한 선행연구가 전무한 실정으로 선행연구와의 비교를 할 수 없었던 점이다.

V. 결론

본 연구는 부산 K병원 작업치료실 내원한 아동들 을 대상으로 베일리 발달검사의 결과를 사용하여 주 양육자의 형태에 따른 아동발달수준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양육자가 부모인 경우(n=120)와 양육자가 조부모인 경우(n=19)으로 총 138명을 대상으로 베일리 발달검사 결과 값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일반적 특성과 베일리 영유아 발달검사 결과 값 사이의 상관관계는 양육자의 형태에서 cognition, language, motor, social emotional에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2. 주양육자에 따른 베일리 영유아 발달검사 결과 값 간의 상관관계는 주양육자가 부모인 경우 cognition과 language, motor와 social emotional, language와 motor간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3. 주양육자에 따른 베일리 영유아 발달검사 결과 값 간의 상관관계는 주양육자가 조부모인 경우 cognition과 language에서만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4. 주양육자에 따른 집단 간 평균 비교에서는 language와 motor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에 결과를 종합해보면 주양육자의 형태에 따라 아동의 발달수준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향후 양육형태 및 다양한 양육방식 등을 확인하여 아동의 발달수준의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가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Abstract

Comparison of Child Development Level according to Main Fosterers: Bayley Development Test III

Lee, Hey-Jin*, Kim, Gwang-Jae**, Choi-Ju-Won***, Lim, Hee-Jeong****, Yang, Yeong-Ae***********, Ph.D, O.T.

*Rehabilitation Science, Inje University Graduate School
**Occupational Therapy Center, Korea Worker’s Compensation and Welfare Service Changwon Hospital
***Occupational Therapy Center, Busan St.Mary’s Hospital
****Occupational Therapy, Inje University Graduate School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College of Biomedical Science and Engineering, Inje University
******Institute of aged life redesign, Inje University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compare the significant differences of children whose main fosterers are grandparents and children whose main fosterers are parents, through the results of child development test. By doing so, it seeks to examine what influence that related characteristic factors on development by main fosterers and what the major factors are.

Methods: This research was conducted by collecting the data of 139 children, who visited the Occupational Therapy Center of K Hospital in Busan and took the development test from January 2013 to November 2015.

Results: 1.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and the results of Bayley Child Development Test, there were significant correlations in cognition, language, motor, and social emotional for main fosterers.
2. As a result of the Bayley Child Development Test according to main fosterers, there was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cognition and language, motor and social emotional, and language and motor if the main fosterers were parents.
3.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Bayley Child Development Test, there was a significant correlation only between cognition and language if the main fosterers were grandparents.
4. In the average comparison between the groups according to main fosterers,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only in language and motor.

Conclusion: Overall,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show that there is a difference of child development level depending on the form of main fosterers, and it is considered that the influence of rearing form and various rearing methods on child development level should be researched in the future.

Key Words: Main fosterers, Bayley Development Test, Child development test
## 국문초록

**연구목적**
본 연구는 아동의 단축감각프로파일 특성 및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향후 진행되는 아동의 유형에 맞는 적절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질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것이다.

**연구방법**
2015년 9월에 충남지역에 거주하는 총 94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단축감각프로파일을 조사하여 아동의 단축감각프로파일 특성 및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으며, 자료분석은 빈도 및 백분율, 집단별 표준편차, Pearson 상관계수로 나타내었다.

**연구결과**
충남지역의 아동의 단축감각프로파일 특성은 발달장애 아동은 청각 여과하기가 평균 4.0 표준편차 0.5로 가장 높았고, 움직임 민감성은 평균 2.6 표준편차 0.5로 가장 높았으며, 일반 아동은 시각/청각 민감성과 평균 4.4 평균 0.6로 가장 높았고, 움직임 민감성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아동의 단축감각프로파일 간의 상관관계는 움직임 민감성과 과소반응/특정자극을 찾는 행동, 청각 여과하기와 활력이 부족하고 허약함 간의 상관관계는 유의미한 상관성을 보였으며(p<.05), 그 외 단축감각프로파일 간의 상관관계도 유의미한 상관성을 보였다(p<.01).

**결론**
아동의 단축감각프로파일 특성은 발달장애 아동은 청각 여과하기가 가장 높았고, 움직임 민감성은 가장 낮았으며, 일반 아동은 시각/청각 민감성이 가장 높았고, 움직임 민감성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아동의 단축감각프로파일 간의 상관관계는 변수 모두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p<.05, p<.01).

**주제어** 아동, 단축감각프로파일, 특성, 상관

---

## I. 서 론

아동의 발달은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며, 감각처리능력은 아동이 주변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유기적으로 형성하기 위해 필수적인 능력이다. 따라서, 감각처리능력은 아동의 행동발달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며(Han, 2011), 이러한 감각처리능력은 다양한 기능 수행과 정서적 반응 및 사회성 증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Ayres, 1964).

그러므로, 감각처리의 문제는 일상생활의 여러 행동 및 정서적 반응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며, 이러한 문제들은 아동의 학습 및 학교작용력에도 중대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고(Lee, & Jung, 2002; Han, 2011), 또에 비해 비정상적인 감각처리 특성이 나타난다면 초기에 감각처리능력을 향상 시키도록 적절한 중재가 고려되어야 한다(Lee, & Kim, 2011).


단축감각프로파일은 현재 임상에서 감각처리능력
평가를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 변한된 이후 학문적인 연구에도 많이 활용되고 있는 평가도구이다 (Kim, Ji, Keum, & Kim, 2009).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도 임상에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고 아동의 감각처리능력에 따른 행동 특성을 잘 살펴볼 수 있는 단축감각프로파일을 통해 아동의 감각처리능력 특성 및 변수들간의 상관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아동의 감각처리능력을 파악할 수 있는 단축감각프로파일 특성을 살펴보고 각각의 프로파일 간의 상관성을 분석하려 하였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향후 진행되는 아동 서비스의 질적인 제고와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2015년도 9월에 충남지역에 거주하는 아동 총 94명을 대상으로 단축감각프로파일을 조사하였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아동의 일반적 특성은 범도 및 백분율로 나타내었으며, 단축감각프로파일 특성은 집단별 평균비교로 나타내었으며, 단축감각프로파일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상관계수로 나타내었다.

III. 연구 결과

1. 아동의 일반적 특성

아동의 일반적 특성에서 성별은 남자 57명 60.6%, 여자 37명 39.4%, 연령은 5~7세 41명 43.6%, 8~10세 33명 35.1%, 11~13세 20명 21.3%, 거주지역은 충남지역의 청양 26명 27.7%, 천안 23명 24.5%, 기타 지역은 45명 47.9%로 나타났다. 아동의 유형은 발달장애 아동은 4명 4.3%, 일반 아동은 90명 95.7%, 주양육자는 부 22명 23.4%, 모 64명 68.1%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에 따라 아동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은 남자 57명 60.6%, 연령은 5~7세 41명 43.6%, 거주지역은 청양 26명 27.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아동의 유형은 일반 아동이 90명 95.7%, 주양육자는 모 64명 68.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table>
<thead>
<tr>
<th>Characteristics</th>
<th>N</th>
<th>%</th>
</tr>
</thead>
<tbody>
<tr>
<td>Gender</td>
<td></td>
<td></td>
</tr>
<tr>
<td>M</td>
<td>57</td>
<td>60.6</td>
</tr>
<tr>
<td>F</td>
<td>37</td>
<td>39.4</td>
</tr>
<tr>
<td>Total</td>
<td>94</td>
<td>100.0</td>
</tr>
<tr>
<td>Age</td>
<td></td>
<td></td>
</tr>
<tr>
<td>5~7</td>
<td>41</td>
<td>43.6</td>
</tr>
<tr>
<td>8~10</td>
<td>33</td>
<td>35.1</td>
</tr>
<tr>
<td>11~13</td>
<td>20</td>
<td>21.3</td>
</tr>
<tr>
<td>Total</td>
<td>94</td>
<td>100.0</td>
</tr>
<tr>
<td>residential district</td>
<td></td>
<td></td>
</tr>
<tr>
<td>cheongyang</td>
<td>26</td>
<td>27.7</td>
</tr>
<tr>
<td>cheonan</td>
<td>23</td>
<td>24.5</td>
</tr>
<tr>
<td>etc</td>
<td>45</td>
<td>47.9</td>
</tr>
<tr>
<td>total</td>
<td>94</td>
<td>100.0</td>
</tr>
<tr>
<td>children type</td>
<td></td>
<td></td>
</tr>
<tr>
<td>developmental disorder</td>
<td>4</td>
<td>4.3</td>
</tr>
<tr>
<td>normal development</td>
<td>90</td>
<td>95.7</td>
</tr>
<tr>
<td>total</td>
<td>94</td>
<td>100.0</td>
</tr>
<tr>
<td>residential district</td>
<td></td>
<td></td>
</tr>
<tr>
<td>father</td>
<td>22</td>
<td>23.4</td>
</tr>
<tr>
<td>mother</td>
<td>64</td>
<td>68.1</td>
</tr>
<tr>
<td>etc</td>
<td>8</td>
<td>8.5</td>
</tr>
<tr>
<td>total</td>
<td>94</td>
<td>100.0</td>
</tr>
</tbody>
</table>

2. 아동의 단축감각프로파일 특성

아동의 단축감각프로파일 특성 중 발달장애 아동은 촉각 민감성 평균 3.7 표준편차 0.8, 맛/냄새 민감성 평균 3.8 표준편차 0.5, 음식물 민감성 평균 2.6 표준편차 0.5, 과소반응/특정자극을 찾는 행동 평균 3.8 표준편차 0.9, 청각 여과하기 평균 4.0 표준편차 0.5, 활적이 부족하고 허약함 평균 3.1 표준편차 1.7, 시각/청각 민감성 평균 3.9 평균 0.8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단축감각프로파일 특성 중 일반 아동은 촉각 민감성 평균 3.9 표준편차 0.8, 맛/냄새 민감성 평균 3.8 표준편차 0.5, 음식물 민감성 평균 2.6 표준편차 0.5, 과소반응/특정자극을 찾는 행동 평균 3.8 표준편차 0.9, 청각 여과하기 평균 4.0 표준편차 0.5, 활적이 부족하고 허약함 평균 3.1 표준편차 1.7, 시각/청각 민감성 평균 3.9 평균 0.8으로 나타났다.
각 민감성 평균 4.1 표준편차 0.6, 맛/냄새 민감성 평균 4.1 표준편차 0.5, 움직임 민감성 평균 4.0 표준편차 0.9, 과소반응/특정자극을 찾는 행동 평균 4.2 표준편차 0.6, 청각 여과하기 평균 4.1 표준편차 0.6, 활력이 부족하고 허약함 평균 4.1 표준편차 0.8, 시각/청각 민감성 평균 4.4 표준편차 0.6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에 따라 발달장애 아동의 단축감각프로파일 특성은 청각 여과하기가 평균 4.0 표준편차 0.5로 가장 높았고, 움직임 민감성은 평균 2.6 표준편차 0.5로 가장 낮았으며, 일반 아동은 시각/청각 민감성이 평균 4.4 표준편차 0.6로 가장 높았고, 움직임 민감성이 평균 4.0 표준편차 0.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3. 아동의 단축감각프로파일 간 상관관계

아동의 단축감각프로파일 간의 상관관계는 촉각 민감성, 맛/냄새 민감성, 움직임 민감성, 과소반응/특정자극을 찾는 행동, 청각 여과하기, 활력이 부족하고 허약함, 시각/청각 민감성의 상관성은 검증한 결과, 변수 모두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p<.05, p<.01).

아동의 단축감각프로파일 간의 상관관계 결과에 따르면 움직임 민감성과 과소반응/특정자극을 찾는 행동, 청각 여과하기와 활력이 부족하고 허약함 간의 상관관계는 유의확률 0.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상관성을 보였으며, 그 외 단축감각프로파일 간의 상관관계는 유의확률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상관성을 보였다.

IV. 고찰

본 연구는 충남지역의 아동의 단축감각프로파일 특성 및 상관 연구이며, 향후 진행되는 아동의 다양한 서비스 개발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실시하였으며,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고찰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이 충남지역에서 거주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기 때문에 연구대상 범위가 제한적

<table>
<thead>
<tr>
<th>Table 2. Characteristics of Short Sensory Profile</th>
</tr>
</thead>
<tbody>
<tr>
<td>developmental disorder (N=4)</td>
</tr>
<tr>
<td></td>
</tr>
<tr>
<td>normal development (N=90)</td>
</tr>
<tr>
<td></td>
</tr>
</tbody>
</table>

<table>
<thead>
<tr>
<th>Table 3. Correlations of Short Sensory Profile</th>
</tr>
</thead>
<tbody>
<tr>
<td>Tactile Sensitivity</td>
</tr>
<tr>
<td>Taste/Smell Sensitivity</td>
</tr>
<tr>
<td>Movement Sensitivity</td>
</tr>
<tr>
<td>Underresponsive/Seek Sensation</td>
</tr>
<tr>
<td>Auditory Filtering</td>
</tr>
<tr>
<td>Low Energy</td>
</tr>
</tbody>
</table>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중 감각기능의 특성 또한 상관관계를 통해 일반화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중 감각기능의 특성 및 상관관계는 발달장애 아동의 경우 청각과 움직임에서 가장 높았으며, 일반 아동의 경우 시각과 움직임에서 가장 높았다. 특히, 움직임의 민감성과 과소반응/특정자극을 찾는 행동의 상관관계는 유의미한 수준을 보였으며, 그 외 단축감각프로파일 간의 상관관계는 유의한 수준을 보였다.

결론

충남지역의 아동의 단축감각프로파일 특성 및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단축감각프로파일 특성은 발달장애 아동은 청각 여과하기가 가장 높았고, 움직임 민감성은 가장 높았으며, 일반 아동은 시각/청각 민감성이 가장 높았고, 움직임 민감성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둘째, 아동의 단축감각프로파일 간의 상관관계는 변수 모두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p<.05, p<.01).

본 연구 결과들이, 향후 진행되는 아동 서비스의 다양한 서비스 프로그램의 개발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자료가 되고, 보다 더 나은 아동의 삶을 위해 부족하지만 기초자료로 활용이 되었으면 한다.

참고문헌

Kim, M. S. (2000). A Comparison of the sensory processing skills of 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y children. Educational Psychology, Ehaw Womans University, Seoul


 Therapy, Inje University, Gimhae.
Abstract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and Correlations between Short Sensory Profile of Children

Kim, Mi-Geom*, Ph.D.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Chungnam State University

Objective: This study was to analysis on the characteristics and correlations between short sensory profile of children, and which is the next progression is for the development of an appropriate program and improvement of the services quality to meet the type of child.

Methods: The way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short sensory profile to target a total of 94 children who live in Chungnam region analyzed the short sensory profile characteristics and correlations relationships of children in September 2015, data analysis, it expressed frequency and percentage, mean comparisons by population, and as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Results: The characteristics of short sensory profile of chungnam region child, developmental disabilities child was highest with an mean 4.0 standard deviation 0.55067 to auditory filtration, motion sensitivity was the lowest with an mean 2.6 standard deviation 0.56928, normal children are visual / auditory sensitivity was highest with an mean 4.4 standard deviation 0.64984, motion sensitivity was lowest mean 4.0 standard deviation 0.94556. The correlation between short sensory profile of child in the motion sensitivity and oversmall response / action to a specific stimulus seeking, auditory filtration and, weakness and a lack of vitality showed a significant correlation (p <.05), and the correlation between other short sensory profile also showed a significant correlation (p <.01).

Conclusion: The short sensory profile characteristics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children to auditory filtration was the highest, motion sensitivity was the lowest, normal children are visual / auditory sensitivity it was the highest, motion sensitivity was the lowest. The correlation between short sensory profile of the children showed a significant correlation in both variations (p <.05, p <.01).

Key Words: Children, Short Sensory Profile, Characteristics, Correlation
논문제목: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본 저자 점검표는 논문과 함께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다음 항목에 대하여 제출된 논문이 불완전하게 작성된 경우 제수정이 요구됩니다.

다음의 각 항목을 확인하고 ✓표시를 하십시오.

_____ 논문을 담은 31/2인치 디스켓과 서포트 1부를 우편을 사용하여 보내거나 혹은 전자메일을 사용하여 보냅니다.

_____ 원고는 윈도우용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한다.

_____ 본문의 글꼴은 신명조, 장평 95%, 크기는 point 10, 줄간격은 160%로 작성하고, 위 · 아래 · 좌 · 우의 여백은 A4 용지 기준으로 3cm로 작성한다.

표지

표지에는 다음사항을 기록한다.

_____ 논문제목 _____ 저자명 _____ 저자소속 기관명

_____ 영문제목 _____ 영문 저자명 _____ 영문 학위명 _____ 영문 면허명

_____ 수정책임자의 연락처 (주소, E-mail, 전화번호, 핸드폰, 팩스)

_____ 학위논문 여부 혹은 연구비 지원기관을 기록한다.

_____ 저작권 양도에 대해 모든 저자들이 서명을 한다.

초록

초록은 국문과 영문을 모두 첨부하게 국문초록은 원고의 앞, 영문초록은 밑 뒷부분에 첨부한다.

_____ 영문 초록의 단어 수는 150자 이내로 작성한다.

_____ 3개 이상 10개 이하의 주제어(Key Words)를 첨부한다.

_____ 영문초록에서 저자명은 성(family name)을 앞에 표기한다(예: Lee, Mi-Youn).

본문

_____ 본문의 구성은 원저인 경우 서론, 연구방법, 연구결과, 고찰, 결론으로 하며, 종설인 경우 서론, 본론, 결론으로 작성한다.

_____ 의미전달에 혼동이 없는 한 한글로 작성하며, 한글과 영문을 함께 표기할 경우 원칙적으로 영문은 괄호 속에 쓰며 고유명사 외에는 소문자를 사용한다.

_____ 본문에는 아라비아 숫자와 도량형은 meter법을 사용한다.

_____ 원고는 표, 그림 및 사진 등을 포함하여 전체 A4 15매 이내로 작성한다.

_____ 표, 그림 및 사진의 제목과 설명은 모두 한글로 표기한다.

_____ 본문에서의 인용문헌은 해당부위에 저자와 연도를 괄호 안에 표기하고, 여객번호(뒷첨자)를 사용하지 않는다.
본문 내 문헌 인용 시 2인의 경우에는 저자명 사이에 ‘&’로 연결하며, 3인 이상의 경우 저자가 첫 인용 시에만 전체 저자를 표기하고 두 번째 인용부터는 제1저자명 뒤에 ‘et al.’(외국문헌)을 붙인다.

참고문헌
모든 참고문헌은 영문으로 작성을 하며 반드시 본문에 인용된 것만을 표기한다.
참고문헌의 표기방법과 구두점이 대한고령친화산업학회지 투고규정과 맞는지 확인한다.
모든 문헌은 ABC순으로 작성한다. (단, 영문이 없는 문헌의 경우 한글로 제시하되 가나다 순으로 작성한다.)
공동저자가 다수인 경우 모든 저자명을 표기한다.
학술지명은 전체학술지명을 사용한다.

표
표를 만들 때는 선 그리기가 아닌 “표 만들기”를 이용하여 영어로 작성한다.
표의 제목은 간결하고 명료해야 한다.
표에 사용된 약어는 하단에 따로 설명한다.
표는 자체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본문이나 그림의 자료를 중복 나열하지 않는다.
문헌에 제시된 표 번호와 내용을 일치시킨다.
표의 제목은 캡션기능을 사용하여 편집한다.

그림
그림이나 사진은 인쇄과정에서 축소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크고 명료하게 작성한다.
본문 외에 사진을 별도로 첨부할 경우 사진의 규격은 8×10cm이며, 각 뒷면에 제목과 그림번호를 쓰고 위아래 표지를 한다.
그림 설명문은 영어로 작성한다.
그림 설명문은 단순히 제목만 쓰지 않았고 그림을 설명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의 제목은 캡션 기능을 사용하여 편집한다.

저자(들)는(은) 이상의 점검을 모두 마쳤으며 이 점검표를 원고와 함께 보냅니다.
저자(들)는(은) 모두 이 논문의 작성에 구체적이고 중요한 기여를 하였으며 원고 내용에 공적인 책임을 집니다. 이 논문은 이전에 출판된 적이 없으며, 현재 다른 간행물에 게재할 것을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이 논문의 계제 소유에 대한 권한은 대한고령친화산업학회에 있습니다.

저자(대표) (인)
공동저자 (인)
(인)
(인)
본 저자점검표는 2014년 11월 30일부터 적용됩니다.
*본 학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의 것은 미국심리학회(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에서 발행한 규정집 6판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대한고령친화산업학회지 투고규정

1. 본 학회지는 대한고령친화산업학회 편집위원회에서 심의한 원고, 종설 및 증례보고 등을 게재하며, 게재 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제출된 원고는 타 편지에 게재되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본지에 게재된 것을 저자 임의로 타 편지에 게재할 수 없다.

3. 본 학회지는 고령자 및 장애인과 관련된 분야의 논문으로 한다. 관련된 분야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 고령자 및 장애인 관련 고령친화용품, 복지, 여가, 요양, 재활, 주거환경, 식품, 미용 등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연구로 건강하고 활기찬 고령사회를 실현하여 고령자와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한다.

4. 제출된 원고는 타 편지에 게재되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본지에 게재된 것을 저자 임의로 타 편지에 게재할 수 없다.


6. 논문의 게재 여부는 위촉된 각 전공 영역 및 심사위원이 판정하되 그 내용의 보충, 일부 수정, 기간 요구를 받은 논문은 소정의 기일까지 제출되지 않으면 게재시기에 이월 또는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7. 게재된 논문의 별쇄본은 30부를 기본으로 하며 별쇄본 비용은 게재료에 포함되어 있다.

8. 본 학술지에 투고를 원하는 저자 모두는 반드시 회원등록을 해야 한다.

9. 회원주소 변경 시 반드시 본 학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않아 우편물이 반송된 경우에는 착불로 재발송한다.

10. 제출된 원고는
   1) 원도우용 한글을 이용하여 작성하며 원고의 행 간격은 줄 간 160%로 하며 본문의 글자크기는 10, 글꼴은 신명조, 장평 95%, 읽기의 여백은 A4기준으로 3cm로 작성한다.
   2) 의미전달에 헷갈리지 않는 한 한글을 권장한다.
   3) 한글과 영문을 함께 표기할 경우 원칙적으로 영문은 괄호 속에 쓰며 고유명사 외에는 소문자를 사용한다.
   4) 본문에는 아라비아 숫자와 도량형은 meter법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표, 그림 및 사진의 제목과 설명은 모두 한글로 표기한다.

6) 본문 외에 사진을 별도로 첨부할 경우, 사진의 규격은 8x10cm이며 각 뒷면에 제목과 그림 번호를 기입하여야 한다.

7) 초록은 국문과 영문을 모두 첨부하되 국문초록은 원고의 앞, 영문초록은 뒷 뒷부분에 첨부한다(단, 영문초록의 단어 수는 150자 이내로 한다).

8) 영문초록에서 저자명은 성(family name)을 앞에 표기한다.

9) 원고의 전체 매수는 A4 15매 이내로 제한한다.

11. 참고문헌

1) 참고문헌은 반드시 본문에 인용된 것만을 표기하며 영문을 원칙으로 한다. 단, 영문이 없는 문헌의 경우 한글로 제시 하되 가나다순으로, 외국인인 경우에는 ABC순으로 한다. 먼저 국내 저자 문헌을 소개하고 나중에 외국 저자 문헌을 제시한다.

2) 외국 인용문헌의 도서명과 정기간행물명, 학술지명, 권수는 이탤릭체로 하고, 국내문헌은 HY중고딕을 사용한다.


4) 공동 저자가 2인의 경우에는 저자명 사이에 ‘&’로 연결한다. 공동저자가 3-5인 인 경우 모두를 나열하고 마지막 저자 앞에 ‘&’를 붙인다. 공동저자가 6인을 초과하는 문헌은 저자명을 제1저자명 뒤에 ‘et al.’을 붙인다.

(1) 정기간행물 속의 논문
(단 호수는 각 호가 1쪽부터 시작되는 경우에만 표기한다. - APA, 2010, p.199 참조)

② DOI가 있는 경우: 저자명. (발행연도). 제목. 학술지명, 권수(호수), 폭수. doi
예) Gilbert, D. G., McClernon, J. F., Rabinovich, N. E., Sugai, C., Plath, L. C., Asgaard, G., ... Botros, N. (2004). Effects of quitting smoking on EEG activation and attention last for more than 31 days and are more severe with stress, dependence, DRD2 A1 allele, and depressive traits. Nicotine and Tobacco Research, 6, 249-267. doi:10.1080/1462200411001676305

(2) 단행본: 저자명. (발행연도). 제목. 도서명, 주명 또는 국가명: 발행처.

(4) 학위논문 (APA, 2010, pp. 207-208)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해 출력한 경우: 저자명, (발행연도). 제목(학위명). 인터넷주소
   주) 영문 박사학위 논문은 doctoral dissertation, 석사학위 논문은 master's thesis로 표기.


(7) 회보스의 논문: 저자명, (발행연도, 계절). 제목. 회보명, 권수, 쪽수.


   ① 저자가 단체인 경우
   ② 저자가 단체가 아닌 경우

12. 제출된 원고 내용 중에서 본 학회의 투고 규정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원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편집위원이 수정하거나 그 게재를 보류할 수 있다.
<table>
<thead>
<tr>
<th>역</th>
<th>이름</th>
<th>대학명</th>
</tr>
</thead>
<tbody>
<tr>
<td>학회장</td>
<td>양영애</td>
<td>인제대학교</td>
</tr>
<tr>
<td>부회장</td>
<td>양심영</td>
<td>숭의여자대학교</td>
</tr>
<tr>
<td>기획이사</td>
<td>김정기</td>
<td>대구보건대학교</td>
</tr>
<tr>
<td>총무이사</td>
<td>오혜원</td>
<td>우석대학교</td>
</tr>
<tr>
<td>학술이사</td>
<td>박수희</td>
<td>호남대학교</td>
</tr>
<tr>
<td>국제이사</td>
<td>정현애</td>
<td>동신대학교</td>
</tr>
<tr>
<td>홍보이사</td>
<td>김덕주</td>
<td>경북대학교</td>
</tr>
<tr>
<td>교육이사</td>
<td>전성일</td>
<td>호남대학교</td>
</tr>
<tr>
<td>사무이사</td>
<td>한동욱</td>
<td>신라대학교</td>
</tr>
<tr>
<td>재무이사</td>
<td>박수정</td>
<td>대구보건대학교</td>
</tr>
<tr>
<td>출판이사</td>
<td>정복희</td>
<td>호원대학교</td>
</tr>
<tr>
<td>대외협력이사</td>
<td>한경혜</td>
<td>서울시 강동구지재지원센터</td>
</tr>
<tr>
<td>이사</td>
<td>강경울</td>
<td>인제대학교</td>
</tr>
<tr>
<td></td>
<td>이주연</td>
<td>대구보건대학교</td>
</tr>
<tr>
<td></td>
<td>고영욱</td>
<td>SK 건설</td>
</tr>
<tr>
<td></td>
<td>김덕주</td>
<td>청주대학교</td>
</tr>
<tr>
<td></td>
<td>김성우</td>
<td>광주보건대학교</td>
</tr>
<tr>
<td></td>
<td>김화준</td>
<td>우석대학교</td>
</tr>
<tr>
<td></td>
<td>윤홍우</td>
<td>호원대학교</td>
</tr>
<tr>
<td></td>
<td>박주형</td>
<td>경북전문대학교</td>
</tr>
<tr>
<td></td>
<td>유창욱</td>
<td>한려대학교</td>
</tr>
<tr>
<td></td>
<td>염동섭</td>
<td>충남도립대학교</td>
</tr>
<tr>
<td></td>
<td>원시연</td>
<td>임 Rebellion</td>
</tr>
<tr>
<td></td>
<td>장경배</td>
<td>고려사이버대학교</td>
</tr>
<tr>
<td></td>
<td>정상미</td>
<td>성지영서대학교</td>
</tr>
<tr>
<td></td>
<td>조미림</td>
<td>부산서울대학교</td>
</tr>
<tr>
<td></td>
<td>최우경</td>
<td>부산테크노파크기업지원단</td>
</tr>
<tr>
<td></td>
<td>한승현</td>
<td>마산대학교</td>
</tr>
<tr>
<td></td>
<td>황기철</td>
<td>백석대학교</td>
</tr>
<tr>
<td></td>
<td>홍용근</td>
<td>인제대학교</td>
</tr>
<tr>
<td></td>
<td>채중성</td>
<td>일본군마대학교</td>
</tr>
<tr>
<td></td>
<td>최숙희</td>
<td>한양사이버대학교</td>
</tr>
<tr>
<td></td>
<td>차수민</td>
<td>충북대학교</td>
</tr>
<tr>
<td></td>
<td>홍재란</td>
<td>만주대학교</td>
</tr>
<tr>
<td></td>
<td>유진규</td>
<td>인제대학교</td>
</tr>
<tr>
<td></td>
<td>송보경</td>
<td>경북대학교</td>
</tr>
<tr>
<td></td>
<td>정용주</td>
<td>인제대학교</td>
</tr>
<tr>
<td></td>
<td>이범석</td>
<td>일본군마대학교</td>
</tr>
<tr>
<td></td>
<td>최승희</td>
<td>한양사이버대학교</td>
</tr>
<tr>
<td></td>
<td>차병민</td>
<td>충북대학교</td>
</tr>
<tr>
<td></td>
<td>와타나베신이치</td>
<td>일본요코하마재활병원</td>
</tr>
<tr>
<td></td>
<td>이미자</td>
<td>경북대학교</td>
</tr>
<tr>
<td>편집위원장</td>
<td>홍용근</td>
<td>인제대학교</td>
</tr>
<tr>
<td>편집위원</td>
<td>김화준</td>
<td>호남대학교</td>
</tr>
<tr>
<td></td>
<td>김덕주</td>
<td>청주대학교</td>
</tr>
<tr>
<td></td>
<td>염동섭</td>
<td>충남도립대학교</td>
</tr>
<tr>
<td></td>
<td>정복희</td>
<td>호원대학교</td>
</tr>
<tr>
<td></td>
<td>최은미</td>
<td>가톨릭관동대학교</td>
</tr>
<tr>
<td></td>
<td>황기철</td>
<td>백석대학교</td>
</tr>
<tr>
<td>고문위원</td>
<td>양동주</td>
<td>한국안전진흥협회</td>
</tr>
<tr>
<td></td>
<td>최남훈</td>
<td>한국보건사회연구원</td>
</tr>
<tr>
<td>감사</td>
<td>최은미</td>
<td>가톨릭관동대학교</td>
</tr>
</tbody>
</table>